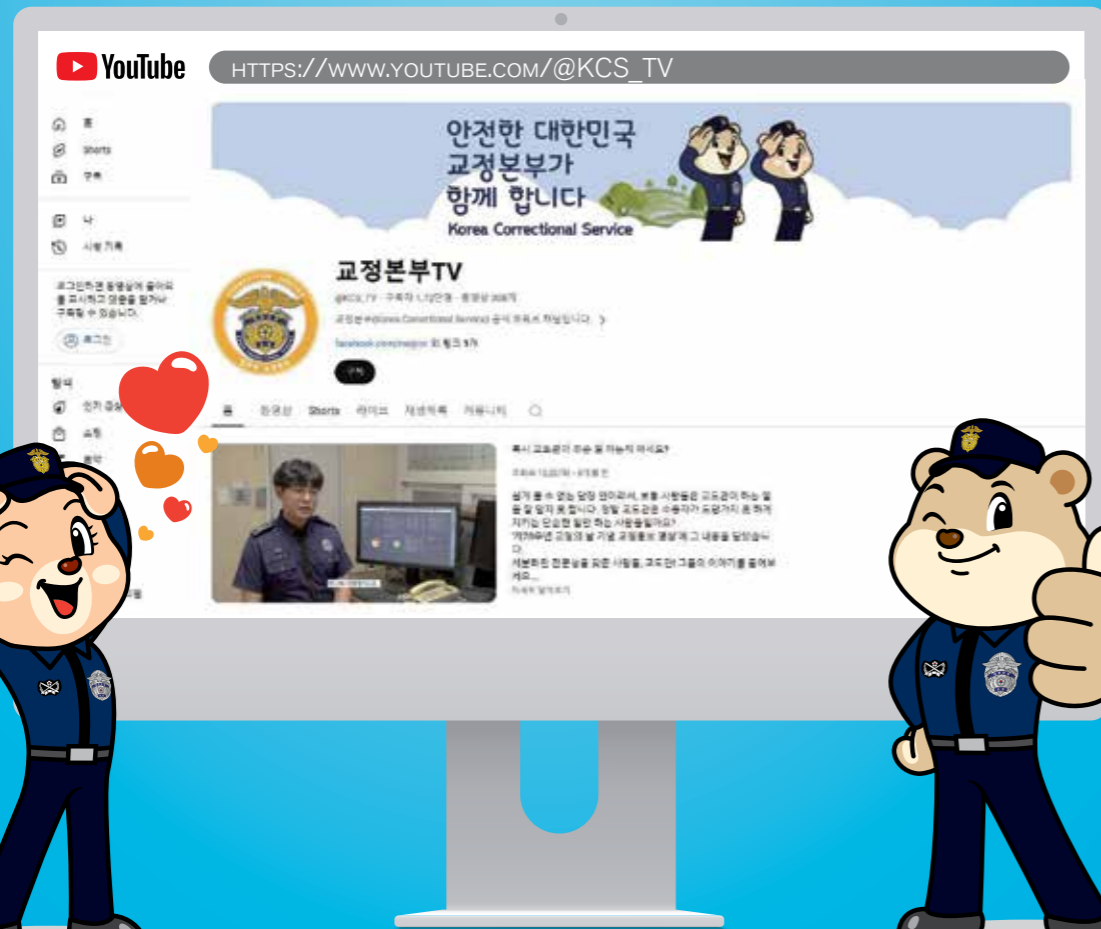




교정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정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교정본부TV를 구독하세요!

교정본부TV는 교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교도소와 교도관의 다양한 활동부터 교정 정책에 대한 소식까지,
교정본부TV에서 만나보세요.



C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논문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의 관계
: 고등감내력과 정서조절 곤란의
순차 이중매개 효과

교정 리포트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교정 백과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11

Vol.582. 2024. NOVEMBER

COVER STORY

11월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있는 달입니다. 아직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겨울이 시작된다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월간 <교정>은 계절의 변화에도 쉼없이 교정 환경 개선에 매진하는 교정 종사자 여러분의 곁에서 발맞춰 나아가겠습니다.



06

04 교정 이모저모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및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06 역사와 오늘

대한민국 교정 1번지
서울구치소

12 교정의 공간

직원과 수용자의 복지를 위해 뛰는
12번째 선수
서울구치소 복지과

18 외부 칼럼

‘올로’는 지고 ‘요노’가 뜬다



12

20 교정 포커스

일본 고령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

48 교정 논문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 이중매개 효과
이은영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위

72 교정 리포트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김성곤 육군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소령

100 칼럼

방송 피디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도관
이동원 SBS 교양국 PD,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136

104 교정 판례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특수성과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례 동향 연구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112 교정 백과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조자연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교위

136 교정 NEWS

145 모범 공무원

146 독자마당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11월 1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및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이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수상자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 위원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

올해 제79주년을 맞이한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순직교도관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령 격려 메시지 등 축하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교정 행정 발전 및 교정·교화에 힘쓴 43명의 유공자가 포상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한다”라며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서 교정본부가 보존기관 대표로 참석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현장을 지키며, 땀 흘리는 자랑스러운 교정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교정 위원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은 유튜브 채널(법무부·교정본부 TV)을 통해 생중계하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과 교정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79회 교정의 날은 다양한 부대행사로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교정의 날 기념 가색방이 진행됐으며, 전국 4개 지방청 공동으로 ‘제53회 교정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수용자, 직원, 교정 위원들의 작품 총 732점이 전시되었고, 전시된 작품은 QR 스캔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도 열렸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

서울구치소

‘대한민국 교정 1번지’는 서울구치소를 이르는 또 다른 수식어다. 1908년 서대문구 현저동의 ‘경성감옥’에서 시작된 서울구치소의 역사는 어림잡아도 100년을 훌쩍 넘었다. 경성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 서울교도소를 거친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교정의 중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엄정한 수용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 박향아 사진 홍승진





이름이 변해도 변치 않는 신념

서울구치소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로 불리는 이유는 그간 켜켜이 쌓아온 서울구치소의 역사에 담겨 있다. 1908년 4월 11일 서대문구 현저동에 경성감옥이 설치된 것이 역사의 시작이다.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1961년 12월 23일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고, 1967년 7월 7일부로 현재의 이름인 '서울구치소'로 개칭됐다. 서울구치소는 불리는 이름의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 변치 않은 것이 있다. 사회 정의와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신념이다. 그 신념은 1987년 11월 15일 경기도 의왕시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이름과 지리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이유다.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교정시설 중 최대규모로, 구내 면적만 따져도 대략 축구장 20개 면적과 비슷하다. 또한 하루 평균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 공무상 접견 등으로 방문하는 민원인 수가 많다. 그만큼 표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업무량도 상당하다. 서울구치소에는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보니, 수용자의 면면 역시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령, 성별, 종교, 장애, 직업, 출신 지역, 거주지역, 국적, 민족, 병력, 성적 지향 등 수용인원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획일화된 원칙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태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서울구치소는 2021년 9월 1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영 중인 대체복무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서울구치소 교정행정 운영의 한 축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정 사관학교

'대한민국 교정 1번지'라는 수식어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자부심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다. 교정시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언론에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되는 교정시설을 꼽으라면 당연히 '서울구치소'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는 만큼,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재계 인사, 유명 연예인까지 서울구치소를 거쳐 간 이들도 적지 않다.

자연히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구치소는 이러한 관심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엄정한 수용 질서를 구축해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대한민국 교정 1번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준보다 더 촘촘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최대 인원의 직원이 최대 인원의 수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과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축적할 수 있다. 근무경력이 다소 짧은 직원들은 열의와 열정으로, 근무경력이 오랜 베테랑 직원들은 경험에서 체득한 노하우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서로의 성장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서울구치소를 거쳐 전국 교정기관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기에 서울구치소가 대한민국 교정 1번지를 넘어, 교정 사관학교로 불리고 있다.



실력 있는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만큼, 구치소 내의 변화와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나 위기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민첩한 태도, 담대한 자세와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곳이 바로 서울구치소다. 직원들의 전입과 전출이 빈번한 곳인 만큼,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업무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은 서울구치소의 강점이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실력을 두루 갖춘 개개인과 이를 뒷받침해 줄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단단한 두 디딤돌을 발판삼아 서울구치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권존중을 기반한 수용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 의식 개선

을 위한 교육, 맞춤형 의료처우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강화,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권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시스템 구축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000여 명. 청렴산책로, 대기 공간인 사랑방, 희망갤러리와 카페 등은 이들 민원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과 당구장, 바둑실, 게임 공간, 직원휴게실, 1인 1 직원침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도 계속해서 증설해나가고 있다.

설과 추석맞이 지역 사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사랑의 헌혈과 헌혈증 기부 행사, 봄맞이 소내 환경정비 사업과 수목 정비사업 등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정위원 참관 행사와 직

원 청렴유적지 탐방 행사, 음주운전 결의대회, 마약근절 캠페인 등의 행사와 언론기관의 취재 협조 등도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내고 있는 업무다.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온전히 재판을 마치고 유죄가 확정된 수용자들의 형의 집행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수용자들이 법의 엄중함과 엄정한 수용 질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서울구치소만의 교정 문화를 단단히 쌓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라는 자부심을 품고, ‘국민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은 서울구치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다.



직원과 수용자의 복지를 위해 뛰는 12번째 선수

서울구치소 복지과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을 지원하는 코칭스태프가 없다면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플레이도 나올 수 없다.

서울구치소에도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직원들은 물론 수용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오늘도 그라운드 밖에서 열심히 뛰는 이들, 서울구치소 복지과를 소개한다.

글 박향아 사진 홍승진

직원의 필요를 살피고 촘촘하게 채운다

복지과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과 수용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다. 서울구치소 울타리 안의 모든 이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 복지과의 역할. 최광호 과장을 수장으로 다수의 직원이 서울구치소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구성원의 필요를 살뜰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이유다.

복지과의 업무는 서울구치소 내 모든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다. 구입팀에서는 직원과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계약부터 구매, 보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고가의 냉난방 기기부터 볼펜 한 자루까지, 서울구치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의 보급을 담당





하는 만큼,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복지과 사무실을 가득 채운 물품 상자와 설재 없이 올리는 전화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차량 팀장을 비롯한 운전직 직원,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차량팀은 서울 구치소 수용자 이송, 출정, 호송을 책임진다. 수용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만큼, 재판관을 위한 호송만 해도 하루 200건이 훌쩍 넘는다. 또한 외부 병원 진료와 관외 출정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다. 차량팀은 차량, 운전 기사, 그 외 호송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수용자의 보안과 안전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한다.

급양팀은 직원과 수용자의 주식, 부식물 발주부터 식단 구성, 식당 운영까지 식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는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최광호 과장과 직원들은, 구성원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한 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니즈를 귀담아듣고 조리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선한 재료 수급과 영양가 있는 식단 구성, 맛있는 조리까지 세심히 챙기는 중이다.

매일 아침, 직원 휴게 공간인 ‘사랑방’에서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브런치 타임’이 펼쳐지는데, 이 역시 복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다.

“직원 식당에서 아침을 제공하지만, 바쁜 출근 시간인 만큼 아침을 건너뛰는 직원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근무지와 가까운 사랑방에 식빵과 잼을 준비해두고 있어요.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수평적 문화

복지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구치소 내의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만큼, 업무의 양도 범위도 상상 이상이다. 팀원과 호흡하며 복지과를 이끄는 최광호 과장은, “욕심 많은 리더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이 많다”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미안함만큼이나 팀원들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도 크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이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구치소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서울구치소가 교정 1번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만큼, 복지과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 즐겁게 채워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복지과의 리더라고는 하지만, 각 업무의 담당자들이 저보다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까지 수천 명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업무 지원이 늦어지면 현장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도 필수적이고요. 그렇기에 지시 후에 움직이기보다는 각자의 업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리더인 셈이지요.”

젊은 직원들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참신한 아이디어, 빠른 업무 속도 역시 복지과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다. 이러한 강점이 업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은 최광호 과장의 몫이다. 최 과장은 형식적인 회의나 보고 대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그라운드 밖 지원은 계속된다

제복 공무원에게 제복은 그 기관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2023년 교정공무원의 제복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서울구치소 복지과가 있었다.

“제복은 우리의 자부심인 동시에 근무 시간 내내 착용하는 의복인 만큼, 근무자의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복류들은 원단의 성능 및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했던 교정공무원 방한 점퍼와 활동성 근무화 관련 프로젝트는, 직원들의 필요를 귀담아듣고 반영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교도관의 업무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 점퍼보다 보온성을 강화하고, 근무화의 품질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피복류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찰, 군인 등 국가기관 피복 담당자 및 의상학과 대학교수 그리고 섬유전문검사기관의 연구원들을 초빙하여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착용할 제복인 만큼, 작은 부분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고, 그래서 정말 힘든 작업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새로운 피복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한 마디, 새로운 방한 점퍼와 근무화를 신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근무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곤 합니다. 직원들이 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최광호 과장은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복지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복지과 직원들은 모든 직원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밖에서 묵묵히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Interview 복지과 최광호 과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동시에 수용자들의 복지도 챙겨야 하고요.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우리 서울구치소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복지과 팀원 모두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우리 복지과에는 20, 30대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정확성, 기민성은 물론 다들 똑똑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이들이 서울구치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더불어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베테랑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이 조화를 이뤘서, 직원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줄 수 있는 복지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로'는 지고 '요노'가 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소비를 자랑하는 일명 '플렉스(flex)' 문화가 유행이었지만, 최근 소비를 절제하는 것에서 맛을 느낀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 송유진 문화칼럼니스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요노족'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이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You Only Live Once)'을 위해 과감한 지출을 마다치 않는 '올로(YOLO)족'의 시대가 저물고, 소비를 절제하는 '요노(YONO)족'이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요노(YONO)'란 '필요한 것은 하나뿐(You Only Need One)'이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소비자들을 가리킨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비 습관이 요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탄생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멋지게 살자'는 모토로 소비 시장을 이끌던 올로족이 사라지고 요노족이 부상한 건 최근 급변한 경제 상황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로족 생활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9세 이하의 평균 소득은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때 유행했던 과시 목적의 소비는 급감하는 추세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에서 요노족의 소비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Z세대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의 소비 습관을 추구한다고 답했다. 소비를 가장 줄이는 항목으로는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등 식비(3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류, 신발, 미용 등 품위유지비(32.2%)'가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6월) 대비 2024년 상반기(1~6월) 2030 고객의 배달앱 소비 건수는 9% 감소했으며, 간편식 소비 건수는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요노족은 액세서리점, 시계전문점, 고가 커피, 숙박업 등에서 타 연령 대비 소비 건수 감소율이 높았다. 특히 스타벅스 등 고가 커피 소비는 13% 감소했으나, 반대로 저가 커피 소비는 12%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노족은 불필요

한 소비를 줄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Z세대 중심으로 '저소비 코어' 열풍까지

이러한 저소비 트렌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미국 언론은 젠지 세대(Gen Z, 199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사이 출생)를 중심으로 '저소비 코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의 SNS에서 신상품이 아닌,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물건을 자랑하는 영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신은 너털너털한 운동화, 오래된 구형 전자 기기, 남김없이 사용한 대용량 화장품, 부모님께 물려받은 옷과 가방,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중고 가구 등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저소비 코어(Underconsumption Core)'는 저소비를 뜻하는 'Underconsumption'에 트렌드나 추구하는 스타일을 가리킬 때 수식어처럼 사용하는 'core'를 결합한 신조어로 필요한 것만 사고, 물건을 끝까지 쓰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물질의 소유를 최소화·단순화 하자는 '미니멀리즘(minimalism)'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CNN은 "최근 트렌드는 소핑하지 않는 것"이라며 Z세대에게는 기념품으로 받은 수건, 중고 가구 등이 '힙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비 코어를 추구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을 '디인플루언서(de-influencer)'라고 소개하며 요즘 유행하는 제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해 본 후 좋지 않은 점을 공유하고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고가 제품을 대신할 가성비 제품을 알려주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역풍인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문제에 관심 갖는 이들을 중심으로 저소비 코어 문화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소비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에 따라 물건을 고를 때 유행보다는 품질과 내구성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값비싼 명품과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 등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보다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오래 쓰는 삶의 모습을 힙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요노', '저소비 코어' 등의 트렌드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단순한 소비 행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를 지키는데 일조하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일본 고령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



박순웅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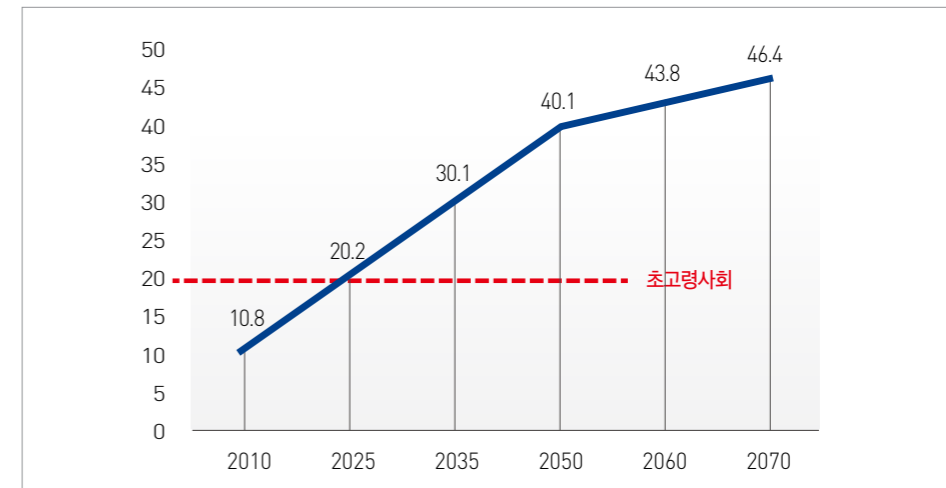
목차

1. 문제의식
2. 일본의 현황
3. 후츄(府中)형무소 참관
4. 도치기(栃木)형무소 참관
5.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
6. 우리나라의 상황
7. 마무리 : 고령수형자 증가에 대비한 제언

1.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인구는 6,319,402명으로, 마침내 20대(6,19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이 중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그림1과 같이 유엔(UN)이 정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증가율



한편,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07년에는 고령화율이 21.5%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도 9월 현재 고령자율은 29.5%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60년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에 비해 일본은 10년, 한국은 7년에 불과해 한일 양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현상은 양국 교정시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에서는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의 수형자 구성비가 2013년 7.3%에서 2022년 16.7%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는 2022년 현재 총수형자 중 65세 이상 수형자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2.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출처: 데일리안 2023.6.23.)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의료적 처우를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투입 등 부대비용이 증가한다. 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부족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빈곤이나 고립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자원 부족으로 출소 후에도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다. 이는 양국의 고령화로 인해 수형자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기존 처우 방법이 회의적이며, 출소 후 재범률 저하와 같은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령 범죄 및 고령수형자 처우 현황을 살펴 시사점을 얻고, 이로부터 우리 교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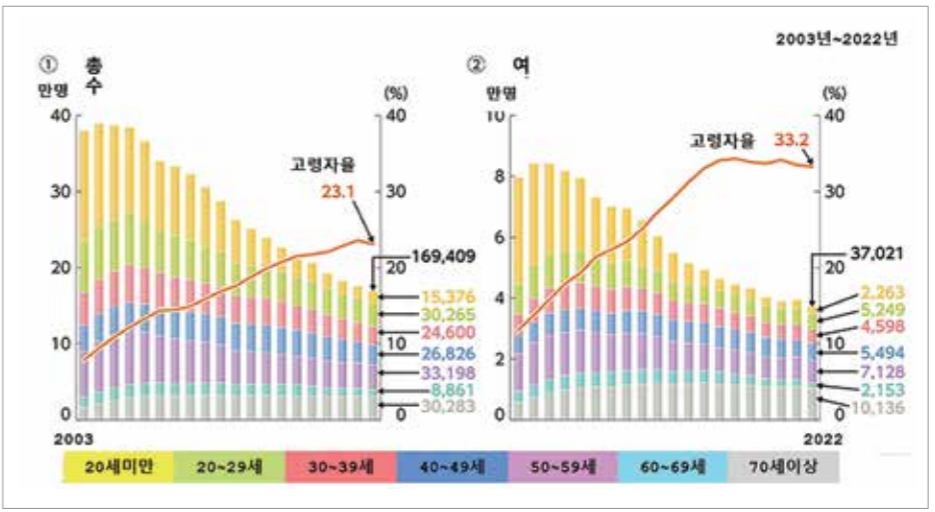
2. 일본의 현황

가. 일본의 연령대별 형법범 검거인원 및 고령자율 추이

일본 범죄백서(2023년)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연령층별 형법범 검거인원 및 고령자율 추이를 총수·여성별로 구분했을 때, 고령자 검거인원은 2008년에 정점(48,805명)을 찍은 후 횡보하다가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70세 이상은 2011년 이후 고령자 검거인원의 65% 이상을 차지하였고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77.4%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연령층의 대부분이 감소 경향에 있는 데 비하여, 고령자율은 거의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은 2012년에 정점(16,503명)을 찍은 후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2,289명으로 6.6% 감소했다. 이 중 70세 이상의 여성은 2011년 이후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의 70%를 넘었고, 결국 2022년에는 80%를 넘게 되었다. 여성

형법범의 고령자율은 1999년부터 2017년(34.3%)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횡보를 보여 2022년은 33.2%를 나타냈다.

그림 3. 형법범 검거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총수·여성별)



나. 입소수형자의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 추이

표 1은 최근 10년간 일본의 연령층별 입소수형자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고령 입소수형자 인원은 2016년(2,498명, 12.2%)에 정점을 찍은 후, 2,100명~2,200명 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2,025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3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입소수형자 인원은 같은 해와 비교해서 약 2.8배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또한 다른 연령층 대부분이 감소 경향인 반면, 여성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인원은 증가세로, 2017년(373명)을 정점으로 2018년 이후에는 290~3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은 333명(전년대비 1.5% 증가)으로 2003년과 비교하면 약 3.3배나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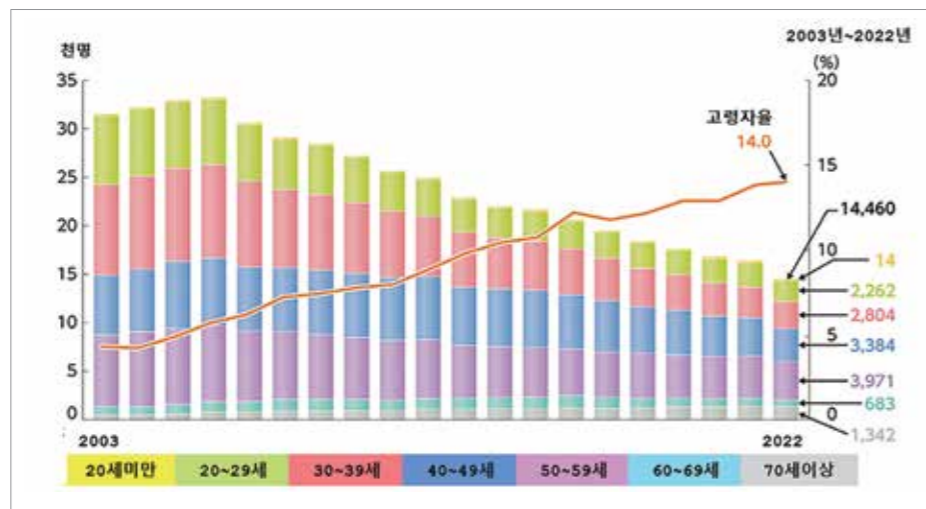
표 1. 입소수형자의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

연도	총수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69(여)	70세이상(여)	고령자율
2013	22,755	31	3,385	5,672	6,007	5,432	1,153(114)	1,075(192)	9.8
2014	21,866	39	3,091	5,244	5,968	5,241	1,156(123)	1,127(224)	10.4
2015	21,539	36	3,122	5,023	5,894	5,151	1,238(138)	1,075(181)	10.7
2016	20,467	30	2,840	4,715	5,596	4,788	1,301(137)	1,197(226)	12.2

연도	총수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69(여)	70세 이상(여)	고령자율
2017	19,336	19	2,689	4,336	5,320	4,694	1,136(139)	1,142(234)	11.8
2018	18,272	15	2,662	3,987	4,745	4,641	1,026(102)	1,196(195)	12.2
2019	17,464	16	2,507	3,653	4,636	4,400	957(91)	1,295(239)	12.9
2020	16,620	19	2,509	3,408	4,142	4,399	849(91)	1,294(245)	12.9
2021	16,152	16	2,490	3,131	3,927	4,355	858(92)	1,375(236)	13.8
2022	14,460	14	2,262	2,804	3,384	3,971	683(77)	1,342(256)	14.0

그리고 그림4와 같이 2006년 이래로 전 연령대의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형자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2022년의 고령자율은 14.0%로 나타났다.

그림 4. 입소수형자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 추이



다. 고령 입소수형자의 죄명별 구성

표2는 2022년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죄명별 구성비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고령자 중 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약물 등 각성제단속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률이었다.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에 비해 절도의 구성비가 현저히 높다. 특히 65세 이상의 범죄 중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범죄동기나 범죄내용 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 고령 입소수형자 죄명별 구성

죄명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25	1,692	333
형법범	1,596	1,282	314
방화	9	9	-
주거침입	26	25	1
추행 등	15	15	-
강간 등	8	8	-
살인	19	17	2
상해	51	47	4
폭행	21	21	-
위험운전치사상	2	2	-
절도	1,177	898	279
강도	22	21	1
사기	116	96	20
공갈	9	9	-
횡령·배임	39	35	4
폭력행위 등 처벌법	21	21	-
기타	61	58	3
과실운전치사상 등	15	15	-
특별법범	414	395	19
공직선거법	-	-	-
총기도검류법	11	11	-
매춘방지법	2	1	1
미약취체법	1	1	-
각성제단속법	172	162	10
도로교통법	172	167	5
기타	56	53	3

라. 고령자에 대한 주요 범죄 분석

1) 고령자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는 주요 범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와 관련된 일반 형법범의 검거인원에 대하여 각 연령층별로 죄명을 살펴보면, 총 검거인원 중 모든 연령층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고령자에 있어서는 절도가 일반 형법범 검거인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횡령*이 22.0%, 폭행이 3.7%, 상해가 2.3%로 뒤를 잇는다. 특히 절도와 유실물 등의 횡령범죄가 고령자의 일반 형법범 검거 인원의 75.0%나 차지

* 검거인원의 99.3%가 유실물 등 횡령임. 또한 고령 범죄자 특유의 통계는 아니지만, 2007년의 유실물 등 횡령의 검거 건수 중 피해품의 96.6%가 자전거임.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령자 검거 인원의 추이를 분석하면, 총수에 서 3만 9천여 명 증가했고, 이 증가분 중 절도가 62.2%, 유실물 등 횡령이 24.1%이며,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절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万引き, 소매절도 또는 줌도둑)이다.

상해·폭행의 검거 인원 및 그 구성비에 대해서도 고령자층의 증가·상승 경향이 현저 하여,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을 죄명순으로 열거하면, 절도·유실물 등 횡령, 그 다음 이 상해·폭행이 된다. 또한 살인죄로 검거된 인원의 고령 인구비는 2007년에 1988년의 약 1.4배가 되어 현재(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살인의 검거 인원 및 그 인구비를 연령층별로 보면 고령자층에서는 20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나 유실물 등 횡령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범죄 중 대표적인 3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① 절도(재범자, 여성의 경우 현저함)

일본의 절도범죄에 있어서 고령자의 증가가 현저한데, 전술한 바와 같이 검거 단계에서의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에 의한 것이다. 물론, 만비키 이외의 절도범을 포함하여 경찰에서의 검거 후 무죄 처분, 검찰청에 송치 후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의 집행유예 등에 처해짐으로써 실제로 실형을 받아 수형자 신분이 되는 사람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의 절도로



재범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수형자 자신의 범죄 성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고령이 되어서 최초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곤궁이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고독, 치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의 만비키 피의자 중 약 80%는 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금이나 퇴직금이 부족하여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레로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함에도 일정한 수입 없이 고정적인 소비를 줄이고자 일부러 만비키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범죄 중 절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범죄성향을 줄이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령 출소자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상해·폭행

절도와 마찬가지로 상해·폭행에 있어서도 각 단계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고령 상해·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앞서 기술한 고령 절도 사범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경제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음주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범죄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검거 후 송치되어도 공판 청구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약식 명령이 청구되고 있다(상해 68.4%, 폭행 80.5%).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서도 상해·폭행의 약 80%가 벌금으로 처분되어, 실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는 적다.

상해·폭행에 이르는 고령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의 경우와는 달리 전과의 유무 등의 상습성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고려할 근거는 없으며, 전과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걱정·분노에 사로잡혀 본인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범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노나 적개심, 불안과 조바심을 완화하고 자존감과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처우를 개발·실시하고 체계적인 상담처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살인

고령자에 의한 살인도 증가 경향에 있다. 다만 고령자의 살인에는 친족살해와 그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조사에 의하면 고령 살인 사범 50명 중 친족살해가 28명으로 과반수이며, 특히 여자 고령 살인 사범은 전원(9명)이 친족살해이다. 더구나 이들 중 과반수가 범행 동기·원인으로서 ‘부양 피로(부양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살인)’를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령 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누군가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생활에 지친 결과로서 친족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국가적·지역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과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더욱 노화되고 범죄성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 없이 생활하는 독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친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주위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 중 저소득이거나 생활보호 등의 복지적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일수록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 고령 범죄의 주된 증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령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대책

일본 법무성은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고령이나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적당한 귀주 처마저 없는 수형자 및 소년원 재원자에 대해 석방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돌봄, 의료, 연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특별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복지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며, 후생노동성의 지역 생활 정착 촉진사업을 중심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 생활 정착 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사법과 복지의 다기관 연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특별조정을 비롯한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전문관(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비상근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2023년도 현재, 일본 전국의 교정시설 중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시설 수는 67개, 정신보건복지사의 배치시설 수는 8개, 복지전문관의 배치시설 수는 58개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후츠행(府中)형무소 참관

가. 후츠행형무소 참관 개요

필자는 릿쿄(立教)대학 초빙연구원(2024.6.17.~7.12.)으로서 대학과 형무소측의 배려로 2024년 6월 19일에 후츠행형무소를 방문하였다.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掛川直之(카케카와 나오키)교수, 임새아교수, 칸토가쿠인(關東学院)대학 사회학부 정희성교수와 함께 후츠행형무소 林豊(하야시 토요)처우부장으로부터 형무소 시설 안내 및 현황보고, 그리고 고령수형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후츠행형무소는 1790년에 설립되어, 1924년에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현재의 위치인 도쿄도 후츠행시로 이전·신설되었다. 부지 면적은 262,187㎡로 도쿄돔 야구장 5.6개분의 규모이다. 주로 형기 10년 미만의 범죄성이 진행된 일본인, 외국인, 그리고 신체·정신 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2024년 6월 현재, 직원은 629명, 수용자 2,6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형무소이다.

그림 5. 후츠행형무소 외부 사진



나. 후츠행형무소 현황

후츠행형무소는 2024년 3월 말 현재(현황보고시점 6월), 일본인 1,190명과 외국인 35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일본인 수용자는 절도가 38.8%로 가장 많고, 각성제 등 약물사

범이 33.6%, 사기 8.3%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각성제 등 약물사범이 57.1%로 압도적으로 많고, 강도 12.7%, 절도 10.2%, 살인 6.5%로, 일본인 수용자와 범죄의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약물사범 중에서도 마약 등의 밀수로 수용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2%로 가장 많고, 베트남 17.2%, 멕시코 6.8%, 말레이시아 6.5%, 미국 5.4%, 태국 4.5%, 한국 2.3% 등 50개국 이상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다. 수형자 처우

후추형무소에서는 일본의 모든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형자 처우의 일환으로 ‘개선지도(改善指導)’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듬해 6월 「형사수용시설 및 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작업’의 규정밖에 없던 감옥법에 ‘개선지도’를 추가하여 이때부터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선지도가 수형자 처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실시한다(제1조)」고 명시하여 수형자 처우 원칙으로서 「수형자 본인의 자질과 환경에 맞도록 개선의지와 갱생의욕을 환기시키고 사회생활 적응 능력 육성을 도모한다(제30조)」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처우의 개별화 원칙으로서 「수형자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기르며 사회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습득한다(제103조)」는 조항을 바탕으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후추형무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수형자 개인의 문제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개선지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일본 수형자의 각종지도에 관한 훈령, 2006년 3348호 제3조).

이에 따라 후추형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고통의 이해를 통하여 죄책감을 갖도록 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이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학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소 후 생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동성, 준법성, 행동양식 등의 함양을 목적으로 일반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개선지도는 개선과 갱생을 목표로 원활한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범죄성향의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는 데, 표3과 같이 약물의존이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취업지원지도 등 6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형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를 실시하는데 부담이 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 일본의 수형자 처우(개선지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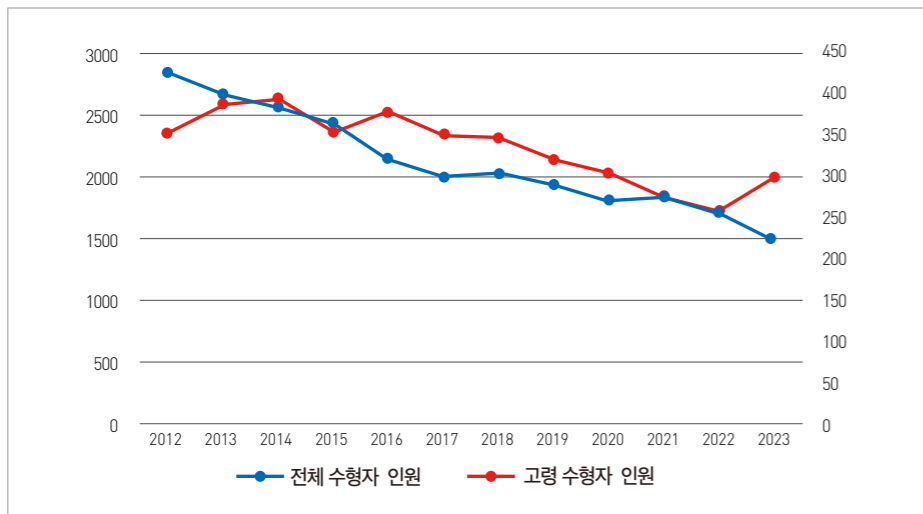
종류	처우	부호	내용	
작업	일반작업	V 0	우리나라와 유사	
	직업훈련	V 1		
개선지도	일반개선지도	R 0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감정의 이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전한 사고방식의 부여, 심신의 건강한 증진, 생활설계, 행동양식의 부여 등을 교육함.	
	특별개선지도	약물의존이탈지도	R 1	약물의 해악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약물의존에 이르게 된 문제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재차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함.
		폭력단이탈지도	R 2	폭력조직의 반사회성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폭력조직구성원이 된 자신의 문제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소속된 폭력조직과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게 함.
		성범죄 재발방지지도	R 3	성범죄로 이어지는 인지의 편향성, 자기 통제력 부족 등 자신의 문제성을 자각하게 하여 그 개선을 시도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시킴.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R 4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 그 유족 등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기의 문제성을 자각,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함.
		교통안전지도	R 5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책임, 사고에 이르게 된 자신의 문제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생명존중의 정신을 익히도록 지도함.
		취업지원지도	R 6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행동양식을 익히고, 직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상정(想定)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함양함.
교과지도	보습교과지도	E 1	우리나라와 유사	
	특별교과지도	E 2		



라. 후추형무소의 고령수형자 문제

후추형무소 참관 시 백발의 고령 남성들이 몇 미터 앞의 받침대를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지거나 자전거형 트레이닝 머신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또 태블릿 PC 앞에 앉아 도형을 맞추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는 고령자도 있었다. 언뜻 봐도 고령인 몇몇 사람들은 작업치료사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요양시설에서나 볼 법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후추형무소에서는 일본인 수용자의 평균 연령이 52세이고, 최고령인 94세를 정점으로 65세 이상이 약 20%를 차지한다. 그림6과 같이 최근 10년간 전체 수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수형자의 인원은 전체 수형자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체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도부터 요양보호사나 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목공이나 금속 가공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도작업이 곤란한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양호특화공장’을 개설하여 교도작업의 형태로 이들을 처우하고 있다. 징역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고령자의 재활을 ‘기능 향상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을 안내하던 직원에 의하면 간단한 작업이라도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형무소의 요양시설화를 우려하면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6. 후추형무소 고령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



또한 신체기능이 취약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일반사회라면 간병 대상이 되어야 하는 수용자가 많고, 일례로 수용자 간 싸움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도 인지기능

저하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어 거의 듣지 못하는 수용자도 많다고 한다. 아울러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수형자가 많기 때문에 음식은 죽처럼 잘게 썰어 배식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출소 후 자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복지시설이나 그룹홈 등의 시설과의 연계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안내 직원은 이것은 후추형무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7. 후추형무소 고령수형자 기능훈련 작업(출처: 디지털 아사히 2024.9.15.)



이러한 배경에서 후추형무소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복지전문관을 배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귀주처가 없고 고령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소 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조정 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개정하여 ‘구금형’으로 일원화된 형법이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의무적인 교도작업이 유연해지고,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범죄성향의 개선을 위한 지도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도치기(栃木)형무소 참관

가. 도치기형무소 참관 개요

후추형무소 참관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2024년 7월 5일 릿쿄대학과 형무소측의 배려로 도치기형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도치기형무소 조사관, 릿쿄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掛川直之교수, 임새야교수, 칸토가쿠인대학 사회학부 정희성교수 등 일본고령수형자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참관하였다. 도치기형무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두 번 기차를 갈아타고 또 2km 정도를 걸어 2시간 반 넘게 걸리는데, 현지인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 만만치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그림8)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지역별로 사회복지축진센터와 형무지소를 포함하여 총12개의 여자형무소가 있는데 도치기형무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이다.

그림 8. 일본의 여자형무소 위치



나. 도치기형무소 현황

도치기형무소는 1872년 도치기수옥(囚獄)으로 시작하여 1906년부터 여자수형자를 수용하였고, 1948년 도치기형무소로 개칭된 이래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증개축공사를 단행하여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774명에서 2024년 현재 5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

세이다. 직업훈련은 양재, 금속조립, 종이세공품 제작 등이며 관용작업으로 세탁, 취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국형무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범죄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별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9. 도치기형무소 시설



다. 수형자의 처우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수형자가 입소한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인수인이나 귀주처가 없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등에 귀주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할로워크(취업지원서비스)나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립이 곤란한 수형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연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특별조정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남성 수용자의 처우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일반적인 처우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정신건강 지원, 부인과 의사의 정기 검진,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특별한 처우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처우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복지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는 ‘여성시설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 공공단체, 간호협회, 조산사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도치기 지역의 의료, 복지, 간호 분야의 전문 직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지도를 바탕으로 여성 수형자 특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처우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반개선지도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절도방지 지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절도는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재범이 두드러진 범죄이다. 이에 따라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절도범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의 원인과 그 결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정, 충동조절 문제 등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의 피해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안적 행동 전략 등을 포함한 대처전략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2) 자기이해 촉진 지도

이 교육은 수형자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 통찰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형자 자신의 감정, 성격적 경향,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아울러 출소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자립지원 지도

이 교육은 출소 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도치기형무소에서는 봉제, 요리, 미용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4) 고령자 지도

이 교육은 일반적인 수형자와는 달리 고령자 특유의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 관리 및 운동지도는 물론, 고령자가 출소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 가족관계 강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족과 건설적인 대화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며, 자녀를 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라. 여성수용자의 수용 상황 및 고령수형자 문제

도치기형무소의 수용 상황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일본 전국의 여성 수용자의 수용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최근 20년간 여성 수용자 연말 집계 수용인원은 2011년까지 증가하여 과잉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 여성의 수용 정원 약 6,500여 명 중 수용률은 62%(4,000여 명)에 그쳤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림10과 같이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 구성비는 200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8년 이후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2012년 이후부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낮다. 40대 연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구성비는 확연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1과 같이 도치기형무소도 예외가 아니다.

아울러 도치기형무소의 수형자 구성을 죄명별로 분석하면, 그림11-2와 마찬가지로 만키 등 절도의 비율이 눈에 띄는데, 2023년은 34%으로 2001년의 14%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하였으며, 약물 등 각성제 단속법 위반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5.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

일본의 형벌체계는 전통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형벌체계가 초고령사회로 인한 고령수형자의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구금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구금형이 사회적 안전과 교정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벌의 시대를 맞아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에서는 2024년 7월 11일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그림12).

그림 10.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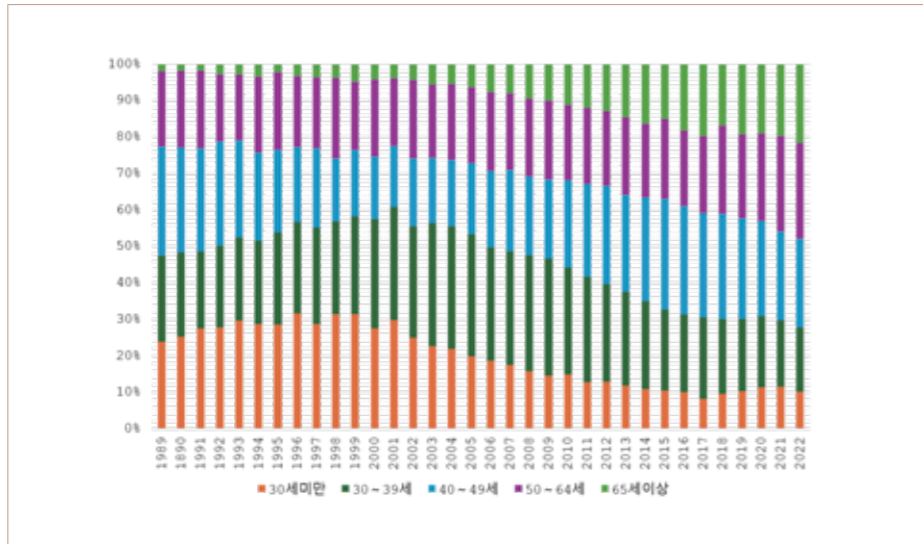


그림 11. 도치기형무소 수형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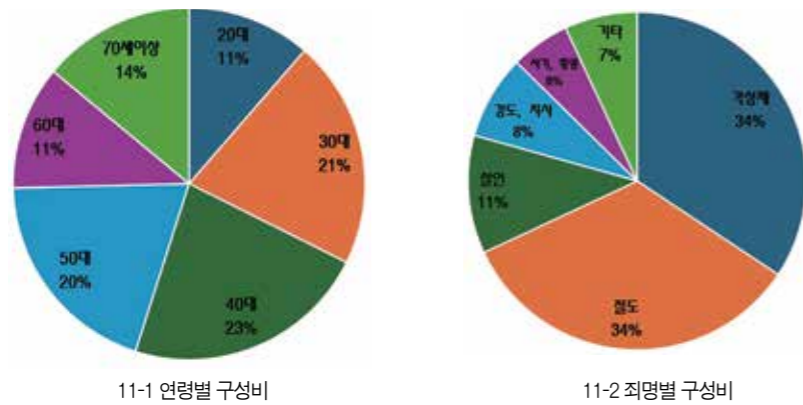


그림 12.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 세미나



가. 처우의 유연성

구금형은 수용자의 자질이나 환경, 출소자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자와 유족의 심정을 반영한 처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금형에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개선지도나 교과지도를 집중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실시하고, 심지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수형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의 마련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개선지도는 근로의욕 고취, 규율 준수, 취업 태도를 함양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한 작업 활동, 범죄 책임의 통찰과 준법의식의 함양이나 건전한 사회인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지도는 출소 후 사회 적응이나 재범방지 차원에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지식 습득과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단약(斷藥)지원, 왜곡된 성의식 교정 등 개별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작업과 교육의 균형을 잡은 처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구금형 수형자를 대상으로 개선 및 교정 처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준에 근거한 과학적 분류를 도입·활용하게 될 것이며, 출소 후 생활환경의 정비나 생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갱생 긴급보호 등 시설 외부로 연계되는 지속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구금형의 도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처우의 구체적인 예로는, 먼저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운영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기법을 활용한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PFI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대책, 지역공생, 인재재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금형이 시행될 경우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외 처우, 작업이나 직업훈련에서 지역사회의 직접 고용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수반하면서 수익성 이외의 요소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시설에 협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교정시설 운영을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재범방지와 지역공생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수형자에게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수형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재범방지로 이어지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구금형 출범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취업 및 주거 확보를 위한 노력,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 고령자·장애인 및 약물 의존자 지원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다.

나. 구금형 실시에 대한 우려

이상과 같이 구금형의 실시로 인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에 있어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형자들에게 균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유연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금형이 수형자의 신체적 상태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교정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징역형이나 금고형 수형자들과 새롭게 수용된 구금형 수형자들과의 혼재로 인한 처우의 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며,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요구되어 장기간 구금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금형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구금형 수형자는 처우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당 부분 고령수형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6. 우리나라의 상황

가.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

그림 13과 같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전체 수형자의 추이를 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수용자의 고령화와 노인 범죄의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수형자 수는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22년 현재 전체 수형자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4-1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수형자의 성별 추이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고령수형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령수형자는 2021년과 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COVID-19의 영향으로 추정됨), 전체적인 고령수형자의 증가율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14-2).

그림 13. 60세 이상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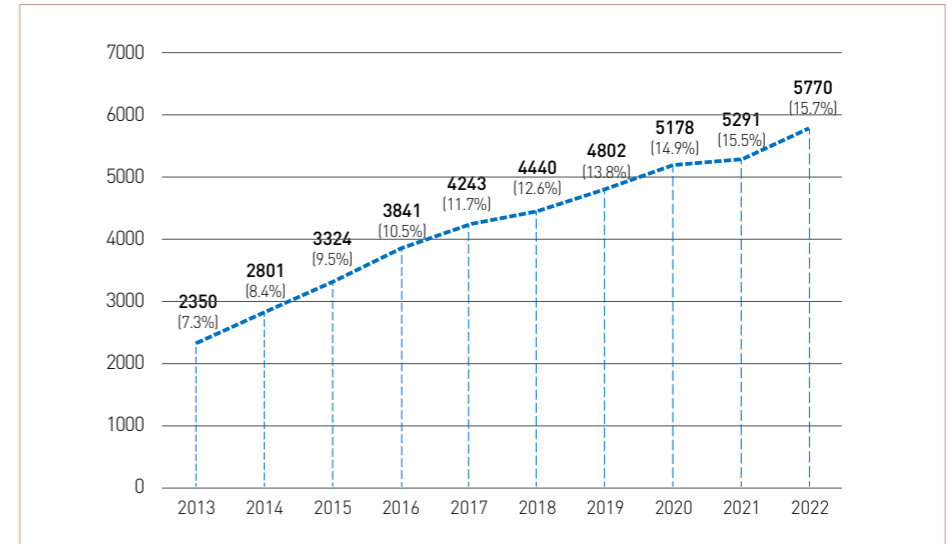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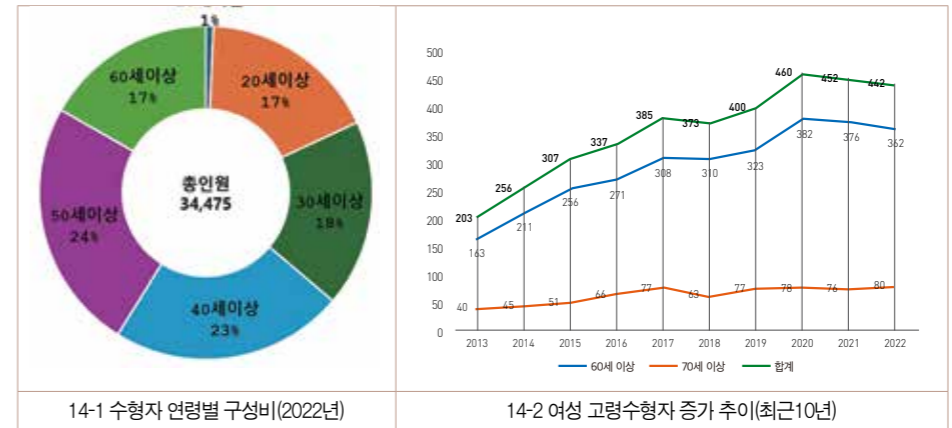


그림 14. 수형자 연령별 구성비 및 여성 고령수형자 추이



나. 고령수형자 처우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4조 제1항에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6항에서는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수형자의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다. 고령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성별·국적·연령·형기 등에 의해 수용해야 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본수용급의 65세 이상의 고령수형자(A급: Aged prisoner)로 분류 후, 경비처우급과 개별처우급에 의해 분류해 처우한다.

- 고령수용자의 정의: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말한다(형집행법 시행령 81조).
- 고령수용자의 배려: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거실의 지정이나 물품의 지급 등의 처우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54조 1항).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노인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교정시설(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집행법 57조 6항).
- 전담시설: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는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가 있다(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83조).
- 고령수형자 대상 시설 및 설비: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43조; 이하 규칙).
- 의료진과 장비: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 의료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고령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규칙 47조 1항).
- 노인수용자 거실: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44조).
- 건강검진: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47조 2항).
-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집행법상 의류의 품목, 의류의 품목별 착용시기 및 대상, 침구의 품목, 침구의 품목별 사용시기 및 대상,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주식의 혼합비 등, 주식의 지급, 부식, 주·부식 등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지급 횟수 등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기타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45조).
- 운동과 입욕: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입욕 횟수를 늘릴 수 있다(규칙 46조).
- 작업: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할 경우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48조 2항).
- 교육·교화 프로그램: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시키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규칙 48조 1항).

다.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처우 사례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는 거실치료, 의료 시설 입원자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남성수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금 수용동에 12개의 거실을 운영하고 있다.

- 완화처우: 완화계획에 의해 수용동 복도, 거실, 화장실 등 보행편의시설(복도 핸드레일, 거실 안전손잡이, 화장실 양변기 등)을 설치하여 거실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휴게실을 마련하여 장기, 바둑, 체스, 신문 등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거실 내 작업: 고령수형자의 건강상태, 신체조건에 맞추어 종이가방 접기, 어댑터 배선공정, 구슬 넣기 작업 등 거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작업 위주로 시행하고, 그 밖에 구내 청소 등 환경정비, 원예실습장과 연계하는 구내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 고령수형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회생활 단절을 통한 외로움 치유, 사회성 회복, 대인관계 능력 개선을 통한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레크리에이션, 공감과 소통, 감정 표현, 갈등의 이해와 해소, 성격 유형 검사, 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인지 강화 프로그램: 고령수형자 스스로 나이들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노인성 치매의 예방, 사고력의 증진,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위생 관리나 대화법 등의 사회적 강화, 롤플레이팅, 회화나 공예 등의 미술 활동, 문예나 음악, 기초 학력의 향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 원예요법 프로그램: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원예활동 체험을 통하여 고령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감정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및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생활체육 프로그램: 고령수형자의 근골격 강화와 대사증진 및 생활체육을 통한 일상건강관리를 목표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요가, 걷기운동, 건강박수 등을 실시
 - 호스피스 프로그램: 고령수형자가 남은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관계 회복과 용서, 성찰과 반성, 경청과 내성(內省), 회상, 감정의 발견과 표현 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
 - 성교육 프로그램: 노인의 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인 만큼 친밀감, 인지 왜곡, 감정 표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인의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7. 마무리 : 고령수형자 증가에 대비한 제언*

가. 고령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의 연령 기준은 고령수형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령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범주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수형자와 관련된 범죄 통계 체계화 및 유형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은 고령수형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고령수형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전용 교도소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는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맞춘 의료 처우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고령수형자를 위한 전용 교정시설은 고령수형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 타당성과 교정의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교정시설의 요양시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고령수형자 처우에 특화된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정공무원들은 고령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문제, 과도한 의료 요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 전담 의료 직원뿐만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령수형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령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수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비전문적이며,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체 상태, 인지 능력,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건강 관리 및 만성 질환 관리 교육, 출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회복귀 이후에도 원활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전과 여부 및 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고령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중요한 분류기준 중 하나는 전과 여부이다. 초범과 누범 간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처우가 필요하며, 전과의 유무에 따라 수형생활에서의 교정처우가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 동기 및 범죄의 특성에 따라서도 개별화된 처우 방식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개별처우와 집단처우가 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와 처우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가필하였음.

이러한 접근은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형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분리 수용

고령수형자가 젊은 수형자나 장기 수형자, 흉악범과 같은 다른 유형의 수형자들과 혼합 수용될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만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거나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형자들의 교정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 수용을 통해 고령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가석방 제도 개선 및 대안적 방안 도입

고령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수형자는 사회복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 복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



외에도 온정적 가석방이나 가택 구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과잉수용 문제나 교정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 작업 참여 활성화

고령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 환경은 고령수형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업 속도나 내용도 고령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체 능력에 적합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작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수형자의 작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수형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의료 처우 개선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수형자에 비해 다양한 의료처우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질병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의 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교정시설 내 상근 의료진을 확충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령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의료 비용 부담을 일부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정시설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수형자 스스로의 건강 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차. 보호 제도 강화

고령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고령 출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 이중매개 효과



이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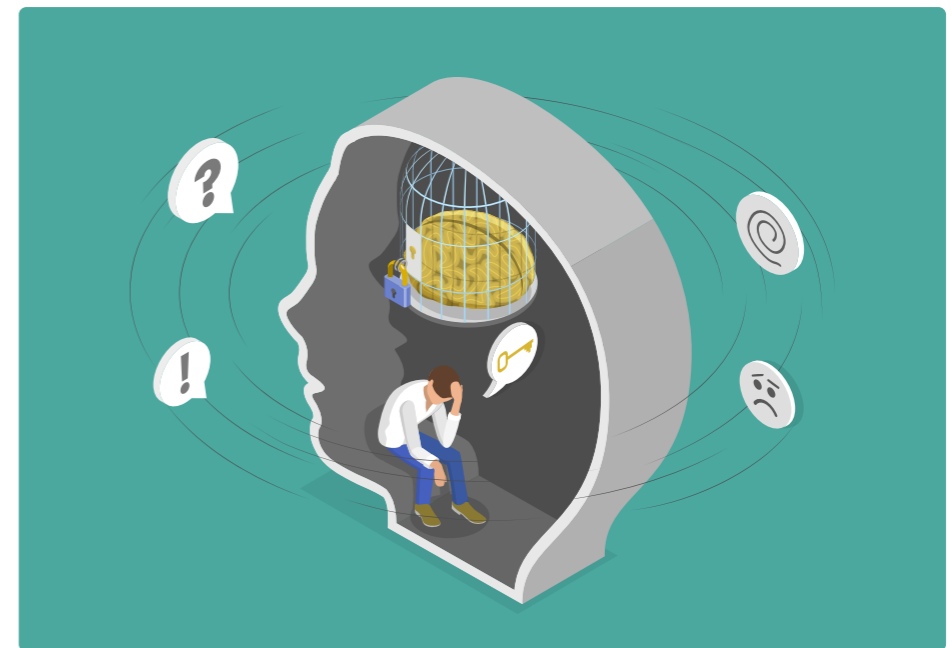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재한 3개 교정기관과 충청권, 경상권에 소재한 2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만 21세에서 만 59세 미만의 교정공무원 223명(남:189명, 여: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직무소진,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고 순차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간의 관계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의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내담자가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주제어: 지각된 통제감,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직무소진, 순차이중매개

1. 서론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서에스터 & 김호진, 2022).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인에게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 성취감을 가져다준다(전혜영, 2020).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되고(김현진, 2021)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윤규미, 2023).

수용자들을 다루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업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직업군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 장광호, 2017).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관리·통제하면서 교정·교화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 특성상 직무소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김미선 & 박성수, 2019) 최근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용자의 과도한 권리구제 요청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허정미, 2023)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 사고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을 경험하고 있다(윤옥경, 2023).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양점미 & 문승연, 2016) 2023년 법무부에서 조사한 「교정공무원 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 건강 위험률 비율이 무능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년 전보다 높아졌고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8%, 자살 시도자는 1.9%로 조사되어 일반 성인의 3.7배와 4.8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23.10.07.). 교정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으로 인해 위태로운 정신 건강 상태에 놓였을 경우 본인은 물론 서비스의 대상자인 수용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양점미 등, 2016).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직무 수행 능력과 결과에 대한 성취감이 감소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직무소진(job burnou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직무소진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사람들과 일하는 이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겪는 감정적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불충분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직무

자율성 결여, 보상 혹은 승진 기회 부족, 상사와의 관계갈등, 역할 갈등, 조직으로부터의 지원 부족, 관료적 조직문화 등이 분류된다(Finney et al., 2013). 이러한 만성적인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정서적 문제인 직무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

직무소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코리와 코리(Corey & Corey, 2021)는 직무소진을 사람들과 장기간 관계를 집중해서 맺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로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무소진은 3개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 고갈로 이를 경험하는 종사자들은 모든 일에 관심과 열정을 잃게 되며 피로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는 비인간화로 냉담해지며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개인적 성취감으로 자존감의 저하로 인하여 개인적 성취에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과 대상과 작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소진은 초기에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보건 계통 직업에서 정서적 고갈(exhaustion)과 관련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사회복지사, 교사, 경찰관, 교도관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으나(Maslach C., 1982), 최근 들어서는 정서적 고갈 외에도, 피로감 등의 신체적 문제, 집중도 저하와 같은 인지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 발생 및 업무 능력 저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승엽, 2020).



소진은 당뇨병, 심혈관 장애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불면증, 우울, 정신장애로 인한 입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alvagioni DAJ et al., 2017) 일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우울감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혜영, 2015).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소진을 경험할 때 우울증과 상관없이 자살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직무소진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우울증이 없어도 자살사고 위험률이 77% 증가하며, 특히 자기 직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거나 직장 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자살 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오대중 등, 2023).

직무소진의 결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허범식, 우승정 & 노동연, 2023).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그 결과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결근이나 이직을 증가시키고 근무 성과가 낮아짐으로써 조직목표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세은 & 김남용, 2022), 소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사회복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이 조직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정숙, 김희수 & 양혜원, 2023). 직무소진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직무소진은 직무 불만족과 이직 의도를 유발하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김성환, 2015)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만석, 2023; 송지아 & 허보균, 202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은경, 김성완 & 김정화, 2017).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각된 통제감을 들 수 있는데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은 한 개인이 환경 내에 벌어지는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Chorpita & Barliw, 1998).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낮은 개인은 무력감이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통제감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 요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Johnson & Sarason, 1978). 또한 지각된 통제감은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강성록, 김용주 & 고재원, 2012). 지각된 통제감은 자신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직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한편 직무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한다(양춘희 & 권용만, 2005). 즉 개인의 지각된 통제감은 조직 내 업무 및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신념이며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장은아 & 한유진, 2022). 높은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높은 유효성을 가지고(Hersch & Scheibe, 1967)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더 높으며 이직 의도가 낮다(Organ & Green, 1974). 이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이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강하고, 직무만족도와 참가적 경영 스타일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정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에서 경험하는 소진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cock & Bryant, 2018a, 2018b).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이란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험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imon & Gaher, 2005). 고통감내력은 최근까지도 합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에서 세부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고통감내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낮은 고통감내력은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살과 자해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달과 유지에 관련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Carpenter & Trull, 2013; Gratz et al., 2011; Michel et al., 2016). 반면에 높은 고통감내력은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적 정서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정지현, 2020), 치료 상황에서의 치료 순응도, 재발, 중도 탈락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Daughters, 2005). 소수의 연구에서는 노출, 수용, 마음 챙김, 주의 분산 등의 정서 조절 전략을 도입하여 고통감내력을 증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Brown et al., 2008). 고통감내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를 벗어나 신체적 고통감내력과 정서적 고통감내력으로 구분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Seo, 2018),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서적 고통감내력은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하며(Simons et al., 2005), 부정적 정서를 견디는 능력, 정서적 경험에 대한 수용적 태도 및 평가, 정서 조절 능력,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는 정도의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헨콕과 브라이언트(Hancock & Bryant, 2018)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증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TSD 증상군과 건강한 집단에 각각 통제감을 다르게 처치하여 정서적 고통감내력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하면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박라임 & 송미경, 2024).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과 수용,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정서의 전략적 사용 능력, 부정적인 환경에서의 감정 절제와 통제, 설정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Gratz et al., 2004). 고통감내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신체 및 인지 과정의 결과로써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Simonset al., 2005). 따라서 고통감내력은 낮은 수준의 정서 조절이나 회피적 대처 방식과 연관되어 있으며(Vujanovic et al., 2013),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을 지닌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정서를 나타내고 회피 행동을 하는 행동양식을 보인다(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이에 따라 오히려 정서적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서 정서적 취약성과 정서조절곤란을 증폭시키는 것이다(Linehan, 1993). 반면 고통감내력이 높은 사람은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Simons et al., 2005). 박경희(2020)는 정서적 외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이 높아지면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낮춰 분노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시몬스와 가헤르(Simons & Gaher, 2005)는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충동적 행동 사용의 증가와 같은 정서조절곤란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하면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이를 인식하거나 명료화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묵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유발된 정서를 회피, 억압하거나 무감각해지려고 한다(양경은 & 박기환, 2014). 이와 같은 정서조절곤란은 직무소진의 핵심 증상인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Buunk & Schaufeli, 1993). 정서조절곤란이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교사의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고(박선미, 2013) 근로자의 직무 탈진에 대한 연구에서 근로자가 정서를 쉽게 조절하면 직무소진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여경환 & 관예주, 2021) 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의 기능적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황보찬귀, 2021).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지각된 통제감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개인이 직무소진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그러한 경로에 관해 밝힌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간의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는 매개변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각된 통제감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면 지각된 통제감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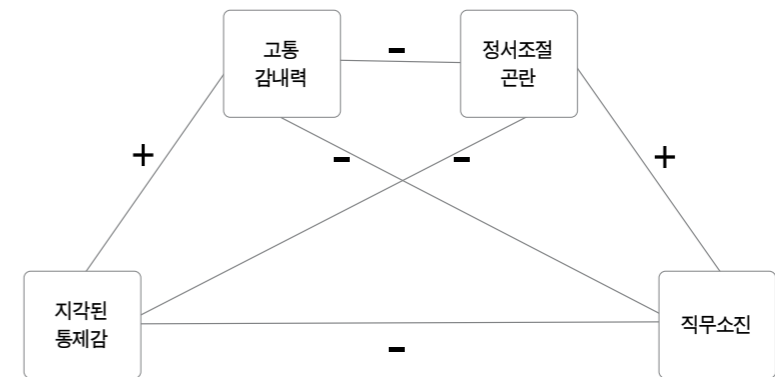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념을 토대로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을 반영하는 변인이 바로 고통감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에 대해 잘 견디는 고통감내력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서조절곤란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변인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둔 일차적 통제를 넘어서 포괄적 조절과 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소진과 같은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Hancock et al., 2018),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주고(박라임 등, 2024; Simons et al., 2005) 정서조절곤란은 직무소진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보귀찬, 2021; Buunk et al., 1993). 변인 간의 이론적 개념 및 개념 간의 연관성,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통제감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그를 통해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이루어 직무소진의 수준이 감소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는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가정하여 이러한 형태의 개념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매개하여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둘째, 지각된 통제감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셋째,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재한 3개 교정기관과 충청권, 경상권 소재 2개 교정기관을 중심 2023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구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발송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가자들이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이 작성되었으며,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작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 이후 참가자들은 직접 동의에 체크 한 뒤 설문 작성을 시작하였다. 설문 분량은 대략 10~20분 정도 소요되는 분량으로, 설문 종료 이후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 회수된 설문 총 225부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를 제외하고 22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표1>과 같다. 남자가 189명(84.8%) 여자 34명(15.2%)으로 상대적으로 남성 교도관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불균

형은 전체 교정공무원 중 여성 교도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녀구성비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연령분포에서는 만 21세 이상부터 59세 미만의 연령 범위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41.95세(표준편차 8.06세)였다. 이 중 근무년수 5년 이내 49명(22.0%), 10년 이내 62명(27.8%), 20년 이내 73명(32.7%), 20년 이상 39명(17.5%)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3)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89	84.8
	여	34	15.2
연령	30세 이하	19	8.5
	40세 이하	73	32.7
	50세 이하	99	44.4
	50세 초과	32	14.4
최종학력	고졸이하	35	15.7
	초대졸이하	20	9.0
	대졸이하	146	64.5
	대학원졸	24	10.8
근무경력	5년 미만	49	22.0
	10년 미만	62	27.8
	20년 미만	73	32.7
	20년 이상	39	17.5
직급	5급이상	3	1.3
	6급	32	14.3
	7급	83	37.3
	8급	65	29.1
	9급	40	17.9

2. 측정도구

1) 지각된 통제감 척도

지각된 통제감은 Rapee, Craske, Brown & Barlow(1996)가 개발한 문항을 오윤희와 오강섭(2009)이 정신과 외래환자 및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비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19문항으로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윤희와 오강섭(2009)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하위요인별로 감정통제는 .85, 위협통제는 .59, 통제무력감은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감정통제 .92, 위협통제 .89, 통제무력감 .92이다.

2) 직무소진 척도

직무소진은 Maslach & Jackson(1981a)이 개발한 직무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최혜윤(2002)이 번안하고 황선유(2017)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합하게 보완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라 성취감 저하 8문항, 비인간화 5문항, 정서적 고갈 9문항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되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인간화 및 정서적 고갈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취감 저하가 높음을 의미한다.

Maslach 등(1981)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개인적 성취감 저하가 .71, 비인간화가 .79, 정서적 고갈이 .90,이고 황선유(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취감 저하 .76, 비인간화 .71, 정서적 고갈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고 하위요인별로 성취감 저하 .83, 비인간화 .66, 정서적 고갈 .90이다.



3) 고통감내력 척도

고통감내력은 Simons & Gaher(2005)가 개발한 것에 대하여 박성아(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를 사용하였다. 고통감내력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평가 7문항, 감내력 및 몰두 5문항, 조절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imons와 Gaher(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2, 박성아(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조절 .60, 감내력 및 몰두 .81, 평가 .82이다.

4) 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척도는 Gratz & Roemer(2004)가 개발한 것을 조용래(2007)가 번안하여 정리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Korea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정서조절 11문항, 정서모니터링 10문항, 정서평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되며 5점 '항상 그렇다'부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클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고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조절 .94, 정서모니터링 .91, 정서평가 .94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 및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 간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가정한 후 PROCESS 6번 모형 적용을 통해 개별 간접효과 및 전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확인을 목적으로 부트

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우선 측정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표준편차와 평균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모두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소진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753, p < .01$; $r = -.736, p < .01$; $r = -.679, p < .01$). 또한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소진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659, p < .01$; $r = -.655, p < .01$).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601, p < .01$). 한편 첨도와 왜도를 산출함으로써 측정변인에 관한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표 2>). 핀치와 웨스트(Finch & West, 1997)는 측정 변인에 대한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각각 7과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상분포 가정에 대하여 충족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변인의 첨도와 왜도 값을 확인해본 결과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의 상관 (N = 223)

		1	2	3	4
1	지각된 통제감	1			
2	고통감내력	.753**	1		
3	정서조절곤란	-.736**	-.659**	1	
4	직무소진	-.679**	-.655**	.601**	1
	평균	74.86	24.00	84.93	62.39
	표준편차	12.85	5.72	21.87	11.95
	왜도	-0.49	-0.45	0.46	0.45
	첨도	0.51	1.50	0.66	0.90

*p < .05, **p < .01, ***p < .001.

2.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1)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336, p < .001), 아울러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944, p < .001; B = -.922, p < .001).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직무소진을 예측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모두 직무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각각 순서대로 B = -.319, p < .001; B = -.618, p < .001; B = .084, p < .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연구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표준화 계수 또한 〈그림 2〉에 포함되었다.

〈표 3〉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 (N = 223)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지각된 통제감	고통감내력	.336	.020	.753	17.025***	.565	289.861***
지각된 통제감	정서조절곤란	-.944	.115	-.554	-8.220***	.563	144.116***
고통감내력		-.922	.258	-.241	-3.579***		
지각된 통제감	직무소진	-.319	.076	-.343	-4.210***	.513	78.809***
고통감내력		-.618	.153	-.296	-4.039***		
정서조절곤란		.084	.039	.154	2.156*		

*p < .05, **p < .01, ***p < .001.

2)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313 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85 와 -0.445 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1번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207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88 과 -0.327 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된 통제감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2번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079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01 과 -0.167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넷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3번 경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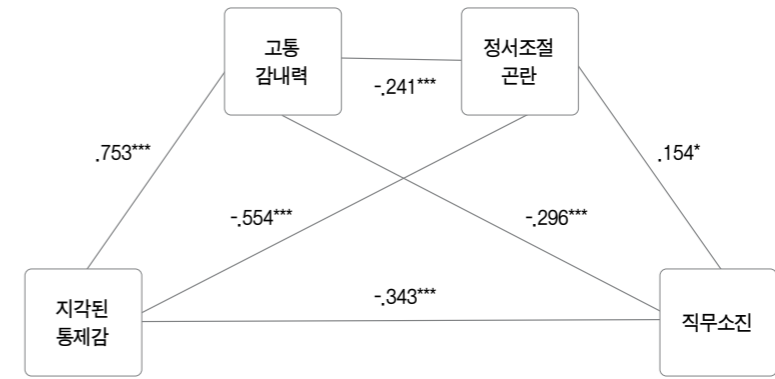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026 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01 과 -0.063 으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223)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LLCI	ULCI	ULCI	
전체 간접효과	지각된 통제감 → 직무소진	-0.313	0.065	-0.445	-0.185
개별 간접효과 1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고통감내력 → 직무소진	-0.207	0.060	-0.327	-0.088
	지각된 통제감 → 정서조절곤란 → 직무소진				
개별 간접효과 2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정서조절곤란 → 직무소진	-0.079	0.042	-0.167	-0.001
개별 간접효과 3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고통감내력 → 정서조절곤란 → 직무소진	-0.026	0.017	-0.063	-0.001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과 상한값.

〈그림 2〉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간 순차 이중매개모형



주.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IV. 논의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직무소진의 각 변인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간의 관계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시간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한다는 한광현(2012)의 연구나 안전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줄어든다는 정해원 & 이우진(202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고통감내력이 정서조절곤란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 역시 고통감내력이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한다는 사전 연구 결과(박라임 등., 2024)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의 정적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의 증가가 직무소진에 기여 한다는 사전 연구와 일치하였다(김유경, 2015; 최형성, 2015).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을수록 고통감내력의 수준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직무소진 증상이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과 같은 정서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제안한 선행연구(장은아 등, 2022; Hersch et al., 1967)와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높인



다는 선행연구(Hancock et al., 2018 a,b), 고통감내력 증가가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정희, 2020; Simons et al., 200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정교하게 검증하였다는 것에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바, 상담 현장에서 직무소진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의 주요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즉,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수준인 내담자가 직무소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 상담자가 고통감내력 수준의 증진과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심리적 개입을 수행함으로써 내담자의 직무소진 수준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고 고통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어렵게 되며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황에 부적응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과 수용,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정서의 전략적 사용 능력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환경에서의 감정 절제와 통제가 어려워진다. 결국 설정된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곤란해지는 상태에 이르러 정서적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경험하는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이 맡은 직무에서의 소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통제감을 지각할수록 그러한 개인은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들에 대한 조절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본 연구모형은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는 발달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았다. 즉, 네 변인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더욱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예측하는 등 단편적인 형태의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통제감을 경험한 개인이 시간적 순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직무에서의 소진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교하게 확인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에서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통제감의 감소 혹은 상실은 직무소진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그로 인한 고통감내력이나 정서조절곤란에서의 변화가 직무소진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무소진 감소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각된 통제감을 토대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이 연쇄적으로 발달하면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준 결과를 살펴보면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직무환경에서 지각하는 통제감을 중요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영역에서 권한 위임, 자율성 증진, 책임과 권한의 일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장려하는 것이 통제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 현장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개입을 할 때 정서조절곤란과 고통감내력 수준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 스스로가 정서 조절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에 관한 인식 및 수용, 표현 등과 같은 정서 조절 능력 향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직무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담현장에서 교정직 공무원 내담자가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상담자는 고통감내

력과 정서 조절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통감내력이 낮은 개인은 습관적으로 고통을 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직무소진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충동이나 생각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높여 고통을 견뎌야 할 순간을 판단하는 상태를 달성하도록 돕고 지지와 공감을 통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감정인식과 표현을 훈련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서 조절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을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직무소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타당도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혹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축소 및 과장된 응답을 하였거나 편파적인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지닌 실제적 성향 반영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 가능한 방안을 다양성 있게 탐색하여 시도할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한 시점에서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 설계로, 모든 변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성록/김용주/고재원, (2012),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그리고 지각된 통제감이 사관생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군사학논집, 68(2), pp.129-158.

김광훈/박종익/이수정/장광호, (2017),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신경정신의학, 56(1), pp.20-27.

김미선/박성수, (2019),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갈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연구, 29(2), pp.159-182.

김성환, (2015), '근무형태별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pp.259-278.

김세은/김남용, (2022), '공공기관 종사자의 소진에 따른 회복탄력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6), pp.3,571-3,586.

김유경, (2015),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열의, 직무소진, 그리고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70(6), pp.277-300.

김현진, (2021), '교정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자기자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2), pp 221-230.

박경희, (2020), '청소년이 지각한 정서적 외상과 분노와의 관계: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라임/송미경, (202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근란으로 조절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77, pp.81-109.

박선미, (2013),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소진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1), pp.21-32.

박성아, (2010),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감내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은경/김성완/김정화, (2017),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경험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사업, 45(1), pp.63-89.

서에스터/김효진, (202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 연구, 21(2), pp73-96

송지아/허보균, (2021), '소방 공무원의 스트레스, 직무소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5), pp.901-914.

양경은/박기환,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조절근란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pp.187-201

양점미/문승연,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과 행복의 관계에 미치는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26(3), pp.27-56.

양춘희/권용만, (2005),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고용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19(3), pp.229-241

여경환/관예주, (2021), '한국기업 근로자의 유교적 가치와 직무탈진의 관계 연구:부정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및 감정노동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8(2), pp.39-60

오대중/신영철/오강섭/신동원/전상원/조성준, (2023), 'Examining the links between burnout and suicidal ideation in diverse occupations, Front. Public Health', Sec. Public Mental Health, 11. <https://doi.org/10.3389/fpubh.2023.1243920>.

오윤희/오강섭, (2009), '개정된 한국판 불안 통제 질문지 요인구조:임상, 비임상표본간 형태 및 측정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8(4), pp.995-1,010.

윤규미, (2023), '항공사 지상직원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고객지향성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35(3), pp.53-70

윤옥경, (2023), '교정사고와 폭력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33(1), pp.3-28.

이만석, (2023), '지역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된 소진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엽, (2020), '소진증후군의 이해와 대처', *신경정신의학*, 59(2), pp.105-114.

장은아/한유진, (2022), '20-30대 성인의 지각된 통제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눈치,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6), pp. 2,899-2,914.

정지현, (2020), '고통감내력 증진 처치가 정서와 행동적 고통감내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5), pp.2,186-2,204.

정해원/이우진, (2023),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통제감과 간호전문직관 및 소진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근관절건강학회지*, 30(2), pp.93-120.

전혜영, (2020) '지체장애 임금근로자의 직장 내 차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pp.51-75.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26(4), pp.1,015-1,038.

최정숙/김희수/양혜원, (2023),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소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4(4), pp. 161-200.

최형성, (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9(5), pp.193-212.

최혜영, (2015), '일반직 종사자의 직무소진과 건강상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5(3), pp.143-153.

최혜윤,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소진',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광현, (2012), '일중독과 직무소진 관계에 있어서 시간통제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7(2), pp.409-430.

허경미, (2023),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33(2), pp.3-28.

허범식/우승정/노동연, (2023), 'MZ세대 스포츠지도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프리젠테이션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32(2), pp.183-199.

황보찬귀, (2021), '공무원의 자기 자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 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0-20

황선유, (2017),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감성역량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국문헌

Brown, R. A., Palm, K. M., Strong, D. R., Lejuez, C. W., Kahler, C. W., Zvolensky, M. J. & Gifford, E. V. (2008). Distress tolerance treatment for early-lapse smokers rationale, program description, and preliminary findings. *Behavior Modification*, 32(3), pp.302-332.

Buunk, B. P., & Schaufeli, W. B., (1993). Professional burnout: A perspective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In W. B. Schaufeli, C. Maslach, & T.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53-6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Carpenter, R. W. & Trull, T. J., (2013). Components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Current Psychiatry Reports*, 15(1), pp.1-8.

Chorpita, B. F. & D. H. Barlow,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 pp.3-21.

Corey, M. S. & G. Corey, (2021). *Becoming a Helper* (8th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Daughters, S. B., Lejuez, C. W., Bornovalova, M. A., Kahler, C. W., Strong, D.R., & Brown, R. A.,(2005).

Distress tolerance as a predictor of early treatment dropout in a residential substance abuse treatment fac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pp.729-734.

Finny et al., (2013):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Demerouti,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pp.41-54.

Gratz, K. L., Hepworth, C., Tull, M. T., Paulson, A., Clarke, S., Remington, B., & Lejuez, C. W., (2011),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al willingness and physical pain tolerance in deliberate self-harm: the moderating role of interpersonal distress. *Comprehensive Psychiatry*, 52(1), pp.63-74.

Hancock, L. & Bryant, R. A., (2018a). Perceived control and avoidance in posttraumatic stres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9(1), 1468708.

Hancock, L. & Bryant, R. A., (2018b). Posttraumatic stress, uncontroll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Depression and Anxiety*, 35(11), pp.1,040-1,047.

Hersch, P. D. & Scheibe, K. E., (196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Personality Dimension, *Journal of Psychology*, 31, pp.609-613.

Johnson, J. H. & Sarason, I. G., (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3), pp.205-208.

Leyro, T. M., Zvolensky, M. J. & Bernstein,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mong adult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pp.576-600.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pp.99-113.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Psychology*, 52(1), pp.397-422.

Michel, N. M., Rowa, K., Young, L. & McCabe, R. E., (2016),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cross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40, pp.94-103.

Organ, D. W. & Greene, C. N., (1974), The Perceived Purposefulness of Job Behavio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7, pp.69-78.

Rapee, R. M., Craske, M. G., Brown, T. A. & Barlow, D. H.,(1996)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27, pp.279-293.

Salvagioni DAJ, Melanda FN, Mesas AE, González AD, Gabani FL, Andrade SM., (2017), Physical, psychological and occupational consequences of job burnout: a systematic review of prospective studies. *PLoS One*, 12:e0185781.

Seo, J. W., (2018),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and Pain Tolera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pp.515-521.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pp.83-102.

Vujanovic, A. A., Bonn-Miller, M. O., Potter, C. M., Marshall, E. C., & Zvolensky, M. J. (2013). An evalu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osttraumatic stress within a trauma-exposed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3), pp.307-315.

■ 기타자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69900004>(검색일 : 2024. 04. 15.)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김성곤
육군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소령

목차

- I. 서론
- II. 법률적 측면 비교
- III. 수용생활적 측면 비교
- IV. 범죄적 측면 비교
- V. 형사정책적 제언
- VI. 결론

*본 연구는 국군교도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연구물입니다.

국문요약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사형확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형집행법」-「군형집행법」, 「형법」-「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제공에서의 상이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 사형확정자, 군사형확정자, 군교정기관, 국군교도소, 군교도소, 군수용자

1. 서론

1. 연구목적

2022년 1월 19일 ‘세모녀 살해사건¹⁾’의 범인 김씨가 2심에서 검찰의 사형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며,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밝혔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하여 규범과 실체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확정자가 59명이 있고, 이 중 군(軍)에서의 범죄로 인한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이 있다.²⁾ 우리나라 사형집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김영삼 정부 말미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³⁾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약 24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군(軍)의 사형집행은 1985년 9월에 총기난사로 8명을 살인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 28사단 화학지원대 박이병이 사형집행된 것이 마지막이다.⁴⁾

최종 사형집행 후 10년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된 후 사형폐지의 주장과 절대적 종신형(김영욱, 2002) 및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허주욱, 2005; 이덕인, 2011)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⁵⁾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군사법체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어⁶⁾ 사형확정자에 대한 적용법률 및 수용장소 등에 따라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가 구분되어 있고, 사형방법 조차 다르게 적용되나 아직도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의 구분⁷⁾ 등 일부 정립되지 않은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김성곤, 2021: 91-94). 또한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특별사면(감형) 등의 형사사법제도의 적용이나 전문교정기능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면에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http://news.kbs.co.kr/> 검색 : '22. 3. 10.)

2)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http://www.ohmynews.com/>(검색 : '21. 8. 19.)

3) 서울구치소 4명, 부산구치소, 6명, 대구교도소 5명, 대전교도소 6명, 광주교도소 2명

4) 국군교도소 역사관 설명 자료 참고

5)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에도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6) 대한민국 헌법에 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로 군사법체계를 유지하고, 1962년에 최초 군법회의법으로 법률 제정 후 1987년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됨.

7) 군인신분에서 제적 여부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지, ‘군인 신분’인지에 대한 사항임.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명확한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발전사항을 연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의 비교적 관점으로 법률적, 수용생활적, 범죄적 특성을 살펴보고,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제도 발전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매우 소수인 4명으로서, 해당 인원만으로 범죄적 측면 비교 부분에서 현재 그 특징을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경적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의 발생한 범죄의 비교가 과연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⁸⁾

하지만 향후 동일 사례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상을 최대한 연구하여 일반화된 특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경적 조건이 다른 것 또한 범죄의 특징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8) 미군도 현재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데이터는 아님. (<https://deathpenaltyinfo.org/>)

II. 법률적 측면 비교

1. 군(軍)사형확정자 용어의 정립

군(軍)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단어의 앞에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군수형자·군미결수용자·군수용자·군교도관·군교도소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군교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 교정기관과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형확정자’만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형확정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형집행법」에서의 사형확정자의 정의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⁹⁾고 명시하여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사형확정자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인 의미가 다른 내용을 같은 용어로 사용됨은 차후 법적해석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는 ‘군(軍)사형확정자’로 변경됨이 맞다고 본다.

특히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에서의 신분적 재판권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형의 방법, 수용의 장소 등 적지 않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⁹⁾

2. 적용 법률

법무부 소속의 민간 교정기관과 국방부 소속의 군(軍)교정기관은 각각 「형집행법」과 「군(軍)형집행법」을 적용하고 있다.

「군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는 ‘군교정기관의 구내와 군교도관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써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군(軍)은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사경찰직무법 등 신분적 재판권이 군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 기타 특정 군 관련 범죄를 범한 민간인 등의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민간 교정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지침을 예규로서, 군교정기관은 국방부장관 업무지침을 훈령으로 각 분야별 특성이 맞게 세부 업무 규정을 수립하여 각종 수용자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표1〉 적용 법률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용 법률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
행정 규칙	법무부장관 예규 (수용자 계호업무 지침 등)	국방부장관 훈령 (군수용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3. 사형 방법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및 형법 제66조(사형)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기관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집행)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 한다.¹⁰⁾

〈표2〉 사형 방법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용 법률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형법 66조(사형)	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군형법 3조(사형 집행)
비교	법무부 장관 명령, 교수형	국방부장관 명령, 총살형

9) 본 논문에는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軍)사형확정자 외 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로 명시하였다.

10) 군사법원법(개정2021.9.24., 시행2022.7.1.)에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형법 개정(2021.9.24., 시행2022.7.1.)되어 사형집행 장소의 지정 권한이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변경되었다.



4. 법률적 / 신분적 지위 비교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¹¹⁾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도 아니고 형의 집행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수형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윤창식, 2010: 1), 엄연히 사형의 집행 시까지 ‘미결수’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형민/김대근, 2019: 1-2, 김용준, 2007: 372)

이와는 별개로 군(軍)사형확정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군인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는 이견이 있다.

국방부의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관리관실¹²⁾은 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확정자는 제적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도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군(軍)사형확정자를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다(법제사법위원회, 2021: 4).

하지만 이미 군조직의 행정은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해 병역법 제3조와 각 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¹⁴⁾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인 상태이다. 이처럼 법령의 해석과 실무 조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본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는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 여부나 사형 집행 방법 등의 차이를 둘 수 있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II. 수용생활적 측면

1. 수용의 방법

민간의 형집행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는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군(軍)의 군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는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軍)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¹⁵⁾에서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항상 석방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사형수에 대한 장기프로그램도 언젠가 있을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09).

이후 2008년에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된 법을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함께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를 삭제하였으나,

11) 2008년 이전 행형법에서 시행령 170조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전부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신청 등 그 실질이 기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수형자로서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12)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13)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16. 3. 28.),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14)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육군 및 해군의 인사명령

15) 1995년에 국제NGO단체인 국제형사개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 작성한 것을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에서 번역/발행함.

군의 균형집행법은 법령 상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⁶⁾

〈표3〉 수용 방법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용 법률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내용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혼거 - 독거 방법

민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구분수용 등)에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행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결수용자나 수행자와의 혼거로만 한정시켜 놓았다.

반면, 군(軍)의 균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는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행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혼거가 가능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나, 군(軍)사형확정자는 혼거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 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 군(軍)사형확정자는 수용의 원칙이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행자와 혼거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는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 작업신청 시 수행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서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수행자와의 혼거수용은 지속적인 인간과의 사회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결수용자와 혼거 시 재판이 종료되거나 구속취소 등으로 나갈 경우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민/김대근, 2019: 51-52).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서 사형확정자가 장기의 수행자에 준한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어 심리적 상태, 교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



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형확정자 수용의 목적인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4〉 혼거 방법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내용	① 혼거 시 미결수용자 및 수행자 무관 ② 사형확정자 간 혼거 불가	① 미결수용실 수용 원칙 (수형자 제한) ② 사형확정자 간 혼거 가능

3. 교육 · 교화프로그램 참여

「형집행법 제90조(개인상담 등) ①」에 의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균형집행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교화프로그램 및 직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확정자는 수행자의 실질을 갖더라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용서의 신분을 갖는다(박형민/김대근, 2019: 5). 따라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수행자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법률 상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박형민/김대근, 2019: 4).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을 한다면 서예 및 악기교실 등의 예능교화프로그램과 각종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등 민간 사형확정자 보다 교육 참여 여건이 양호하다.

16) 균형집행법은 2008년 형집행법의 전부개정 당시 발맞추어 개정이 하지 못한 입법 미비로 보여 향후 군(軍)사형확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4. 교도작업 참여

형집행법에 의하면 사형확정자는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기관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각 교정기관별로 다르겠지만 생산작업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종이가방 접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교도소 공장에 출역하여 작업한 사례가 없다¹⁷⁾. 그 이유는 군(軍)교도소에서의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5조), 과거부터 2020년까지 군용 침대, 책상, 서랍, 케비넷 등을 제작하여 군에 보급하였다¹⁸⁾. 따라서 이는 작업의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작업의 특성 상 위험한 도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용질서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관용작업의 일환으로 사육작업 및 원예작업을 실시하여 군(軍)사형확정자 개인과 기타 모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5〉 교육·작업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교육	기결수용자가 우선시 되어 참여여건이 불비	희망 시 참여 여건 양호
작업	종이접기 등 단순 생산 작업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예, 사육 작업

5.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의료혜택 여건

1997년 이후 약 24년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사형확정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여전하여 다른 수형자들보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술적 용어로 ‘사형확정자 신드롬’이라고도 하며(유병철, 2019;1), 오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고립된 생각과 심리로 인해 조현병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현되기도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기관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9

월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조현병 및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군(軍)형집행법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군교정기관에서의 수용자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¹⁹⁾

군(軍)조직은 전평시 군사적인 목표로 편성 및 운영이 되므로 군사법체계 및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 군교정기관은 필수적이거나, 평시에 치료감호소나 심리치료센터와 같은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의료여건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의 정신질환 발현 시 법무부 교정본부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위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기관 이송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질환 관리를 받고 장기간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6〉 의료 조치

구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치료 기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교정본부 및 각 수용기관의 심리치료과(센터)	국군수도병원(종합병원) 국군교도소 의무실(의원급)
비교	수용자 관리 전문	일반 국군 장병 질병 관리 전문

6.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기관 수용)」에 의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기관에 수용될 수도 있어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5개의 수용시설에 순환식 수용 중에 있다. 반면 군수용시설 중 군(軍)사형확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군교도소가 유일하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17) 국군교도소 직업훈련과 내부 문서

18) 2022년 현재는 신축 중인 관계로 공장출역 작업은 중단중이며,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

19) 국군수도병원의 정신의학과 진료는 가능하나 원거리인 관계로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되고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됨.

있고, 현재도 군미결수용자와 군수형자 중 이송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를 활발하게 민간교도소로 이송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 교정시설의 이송은 전례가 없다.²⁰⁾

하지만 앞서 서술한 장기간 수용²¹⁾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과 교정보부의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내용은 제도적 개선 부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III. 범죄적 측면²²⁾

1. 사건내용²³⁾

1) 육군 7사단 김상병

1996년 10월 1일 10:45경 GOP에서 보급병으로 복무 중 평소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사고당일 보급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질책을 받자 격분하여 근무자의 총으로 3명을 살해, 2명 살인 미수 하여 초병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 육군 28사단 김일병

2005년 6월 19일 02:30경 GP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과 욕설을 들어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근무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총과 수류탄으로 8명 사망, 6명 중경상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3) 해병 2사단 김상병

2011년 7월 4일 11:40경 전방초소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범행을 결심하고 총기 및 탄약을 절취하여 4명 사망, 1명 중상



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4) 육군 22사단 임병장²⁴⁾

2014년 6월 21일 20:10경 GOP에서 경계병으로서 평소 외모와 어눌한 말투로 인해 간부 및 동료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건당일 순찰일지 뒷면에 자신을 희화하여 그린 그림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 후 총과 수류탄으로 5명 사망, 7명 중상을 입히고 군무이탈하여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 범죄 유형

살해 유형의 비교 결과, 민간 사형확정자는 대부분 '보복/문지마 및 강도 살인 등 대부분 자신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물질적·성적 이익을 수단'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의 범죄 유형은 '보복 살인'에 가까웠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징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무기력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동료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질책 및 괴롭힘, 따돌림

20) 국군교도소 교정교화과 내부 문서

21) 국군교도소에 최장기 사형확정자는 1997년도에 수감되어 약 25년간 동일한 시설에서 수용 중에 있다.

22) 범죄유형, 당시직업, 전과유무, 범행동기, 범행연령은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를 참고하였고, 범행장소, 범행도구는 군(軍)사형확정자의 내용분석 적용, 범행대상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23) 구글, 우리나라 사형수, <https://google.com>.

24)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확정자임.

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누적되어졌던 분노가 한순간 촉발되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동료들을 살해하고자 한 보복성 범행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4명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만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다수를 살해한 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면이 혼합되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범행대상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무차별적 총기난사하여 공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녔다.

〈표7〉 살해 유형

구분	보복/묻지마	금품살인	강간살인	유괴살인	친족살인	방화살인
민간	28(35%)	27(33%)	11(13%)	8(10%)	2(2.5%)	4(5)
군	4(100%)

자료 :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3. 당시 직업

민간 사형확정자는 약 76%가 직업이 없이 은둔형 무직으로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군복무 중이었으며 계급은 일병1명, 상병2명, 병장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군(軍)별로는 육군 3명, 해병 1명이고 공군과 해군은 없다. 경계근무로 인해 총기를 많이 다루는 육군과 해병대가 총기를 다루는 상황이 적은 공군과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총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총기사고가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당시 직업(확인된 사람만 표시)

구분	계	무직	서비스업	자영업/회사	학생	기타
민간	62	32(51%)	16(25%)	9(14%)	1(1.5%)	4(6%)
군	4	4(100%)

자료 :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4. 전과 유무

민간 사형확정자 중 초범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74%가 재범이었다. 반면 군사형확정자는 100%가 초범이었다.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전과(前過)가 있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는 못하고 병역법에 의거 현역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군(軍)사형확정자가 전과가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이 군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여 주변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와 익숙하지 않은 임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복무염증을 느껴 현실도피를 위한 사고로 발전하였다.

〈표9〉 전과 유무

구분	계	초범	2~4범	5~7범	8~10범	11범이상
민간	63	17(26%)	26(42%)	7(11%)	9(15%)	4(6%)
군	4	4

자료 :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5. 범행 동기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물질적·성적 욕망 또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 조직의 상·하계급 간 특성으로 인해 간부 및 선임에 의한 질책, 그와 함께 따돌림을 경험하고, 특히 후임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여 스스로를 비관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중요성이 생겨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범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 중 해병 2사단 김상병과 육군 22사단 임병장은 범행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각각 수류탄을 자신의 앞에서 폭발시키거나 자신의 심장부위에 스스로 총을 발사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자신도 죽음으로서 그만큼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0〉 범행 동기

구분	계	이욕	보복	유혹	우발	가정불화	현실불만	기타
민간	63	30(48%)	19(30%)	6(9%)	3(5%)	2(3%)	2(3%)	1(1.5%)
군	4(100%)	.

자료 :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6. 연령

민간 사형확정자는 30 ~ 40대에서 88%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만 19세부터 만 20세에 범행을 하였다. 이는 군에 입대하는 자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만19세부터 만22세이기 때문에 민간 사형확정자보다 평균 10세 정도 적은 나이에 사형확정자가 되었다.

〈표11〉 범죄 당시 연령대 (확인된 사람만 표시)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민간	62	15(24%)	27(43%)	28(45%)	2(3%)
군	4	4(100%)	.	.	.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7. 범죄 장소

사람에게 있어 생활환경은 범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 등의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인구밀집’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부분이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당하기 쉽고, 이때 부정적인 영향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수정, 2018: 71).

이처럼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이 그 장소에서 공격성으로 발현되었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범행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조직이라는 폐쇄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에서의 범행이었고, 특히 주목할 것은 4명 모두 최전방 부대였다는 것이다.



〈표12〉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장소

구분	김상병	김일병	김상병	임병장
소속	육군 7사단	육군 28사단	해병 2사단	육군 22사단
장소	강원철원 GOP	경기 연천 GP	인천 강화 전방초소	강원 고성 GOP

8. 범행 도구

민간 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는 각종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인 요소에 의한 다수 종류의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흉기가 없을 때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살인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성격마다 다양한 양상을 띄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단순 조작으로 많은 살상능력을 가진 총과 수류탄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였다.

Berkowitz(1989)는 공격성 이론으로 외부적·내부적 환경도 공격적인 대응을 증가시키며 무기가 그러한 외부적 자극의 좋은 예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총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이수정, 2018: 61).

이처럼 최전방에서 살상무기인 총, 수류탄을 가지고 근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마다 범행에 대한 상상을 하였을 것이고, 어느 한 시점에서 촉발된 것이다.

〈표13〉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

구분	7사단 김상병	28사단 김일병	해병2사단 김상병	22사단 임병장
도구	소총	소총, 수류탄	소총, 수류탄	소총, 수류탄

9. 범행 대상

우리나라의 2008 ~ 2017년의 10년 간 살인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는 21.6%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특히 친족에 의한 범죄의 비율이 21.2%로 매우 높았고, 애인 9.7%, 지인 10.2%, 친구나 직장동료 8.4%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홍영오/김빛나/손지선, 2019: 146)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대상은 ‘친구 및 직장동료’로 구분할 수 있겠다.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로 친구이기도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개념에서는 직장일 수 있다. 군(軍)사형확정자는 분명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변모했다는 특성이 있다.



〈표 14〉 2008 ~ 2017년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타인	친족	지인	애인	친구 및 직장동료	기타
내용	21.6	21.2	10.2	9.7	8.4	50.5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 ~ 2017년 각 년도 분석자료

V. 형사정책적 제언

1.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에 대한 법령해석 재고

앞서 법률적 측면의 비교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²⁵⁾과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한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⁶⁾

25)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26)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거부 검토 (16. 3. 28.)

그러나 위 법률적 해석에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군(軍)사형확정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서, 병역법 상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협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형확정자의 선거권 관련하여, 형법 제43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적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기준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선거권을 상실케 하였다. 만약 공직선거법도 문언적 해석만을 하였다면 사형확정자에게 선거권을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입법취지나 법질서의 전체적인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²⁷⁾하여 사형확정자의 선거권을 상실케 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법적 해석을 한다면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상 ‘6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의 범위에 충분히 ‘사형확정자도 제적의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언적인 해석에 충실하여 단순히 ‘사형’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제적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또한 각 군조직의 행정적으로 이미 병역법과 각 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軍)사형확정자 대해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이라고 사료된다.

2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시설 이송 가능성 확대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이다²⁸⁾.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의 이송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법무부는 ‘사형의 방법이 다르다’ 등의 이유로 이송이 되지 않고 있다.²⁹⁾

위 법률적 해석에도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에는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이송이 되었다면 민간수용시설 적용 법인 「형집행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지위는 군인 신분으로 범죄하였을 때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고,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시점부터는 형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아 사형의 방법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적용됨이 맞다고 판단된다.

군사법원법 제56조(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의 집행)도 사형의 명령권자, 장소와 방법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만약 사형 집행 시 군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군(軍)사형확정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총살형으로, 민간 사형확정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이며, 군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민간교정시설로 이송이 되는 순간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는 없어지며,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³⁰⁾

최근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군형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³¹⁾. 주요내용은 군수용자 중 여군수용자를 민간교정시설로 보내는 것을 의무조항인 「군형집행법 제20조 ①」에 군(軍)사형확정자도 포함하여 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법안이다.



〈표 17〉 군(軍)사형확정자의 교정기관 이송 관련 군형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내용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위 법률 개정안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및 사형확정자의 교화 목적 상 바람직한 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도,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다.’³²⁾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매우 장기적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형확정자의 수용의 목적인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통보』, '16. 3. 16.

29)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군사형확정자 이송 검토 결과』, '20. 10. 29.

30) 현재도 군수용자(미결, 기결) 중에서도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송 후에는 군수용자의 신분이 아닌 민간 교정시설의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법적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형확정자만 예외라고 볼 수 없다.

3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81 ('21. 4. 14.)

32) 법제사법위원회,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21. 6.)

이에 법무부는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軍)사형확정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전문성 있는 처우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군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군교도관은 군사경찰 특기를 가진 간부로서 일정 기간 국군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군사경찰부대로 전출되며, 교도병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동안 교정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강태경 등 8명, 2019: 351-352).

종합하여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軍)사형확정자를 ‘군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법률 해석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형집행 방법이 상이하어 이송이 불가하다’는 법적 해석이 지금의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시키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법령해석을 재고하여 이송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의 교정직 공무원에 의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변경

우리나라는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의 방법을 총살(Firing Squad)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법의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의 근원이 된 미군도 총살형이 아닌 독극물주사(Lethal Injection)를 이용한 사형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1977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 이러한 방법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법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박용철, 2010: 349)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을 따르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군(軍)사형확정자도 평시에는 교수형, 전시에는 총살형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군형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³⁵⁾. 주요내용은 「군형법 제3조」에서 전·평시 구분없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방법인 ‘총살’에 대하여 ‘전시에는 총살, 평시에는 교수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35)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8 (‘21. 4. 14.)

〈표 18〉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내용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다만, 전사·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법령 개정이 된다면, 법무부의 ‘사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송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해소되어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가능할 것이며, 역사의 흐름과 인권 보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고 사료한다.

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준비³⁴⁾

2021년 6월경 공군여군 중사의 사망 건³⁵⁾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군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어 2021년 9월 24일부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³⁶⁾.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심까지 유지했었던 군사재판부가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으로써 1심까지 유지되는 점³⁷⁾, 군인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군사법체계에서 이루어졌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군내에서 총기난사 등의 살인사건 발생한다면 범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최초부터 군에서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간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

34)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35) 수송대에 오른 군사법체계, <http://www.hankyung.com> (검색 : '21. 8. 19.)

36) 개정취지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37)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수용시설에 수용중인 자를 ‘군(軍)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으로 유지하여 수용 및 사형방법 등의 법의 적용이 별도로 있었으나, 법령개정 시행부터는 군수용시설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은 매우 감소할 것이다. 단,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는 있으나³⁸⁾, 군사법원이 1심까지로 변경되어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의 재판권으로 인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도 軍교정시설에서 민간교정시설로 변경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예견가능성 있는 혼란이 불가피한 점 등을 사전에 법률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정립과 국방부와 법무부 간의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때이다.

5. 군(軍)사형확정자에게 특별감형 기회 부여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됐다가 사면(감형 포함)된 사형수는 2008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44명이다.³⁹⁾

이 중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은 확인된 바 없다. 사형확정자의 특별사면에 대한 역사를 보면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故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같은 정치 관련자를 포함하여, 일부 강력범죄자들의 감형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신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는데 그 중에는 ‘페스카마호 사건⁴⁰⁾’의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던 전씨도 포함되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2일에 중국조선족인 전씨 등 6명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원양어선에 조업을 하던 중 선장 및 기존의 선원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조선족 6명이 공모하여 한국인 선원 7명과 중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살해하는 등 총 11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하여 전씨는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산지역 5개 인권단체에서는 당시 원양어선에서 가해자들의 비인격적인 삶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3만명의 탄원서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고, 사형확정자 전씨는 약 10년이라는 수용생활 간 반성을 하며 생활하여 2008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가혹행위, 따돌림 등의 배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전씨가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 중에서도 장시간의 수용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용자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군(軍)사형확정자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의 반성과 교화의 정도, 수용생활, 유가족으로부터의 탄원 등이 고려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군(軍)사형확정자에게도 특별감형을 통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우리나라의 군사법체계로 인해 법무부와 국방부의 수용기관이 별도로 있어 사형확정자의 처우나 적용법령의 차이점이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형방법의 차이가 가장 큰 비교가 되었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의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였다.

생활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출역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짐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납물품의 생산작업임에 따라 위험성이 있어 단순한 사육 및 원예작업을

38)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역대 사형 사면자 44명’ : <https://news.sbs.co.kr> (검색 : '21. 8. 19.)

40) ‘페스카마호 사건’이란 : <https://www.yna.co.kr> (검색 : '22. 3. 10.)

하며 작업보상금을 통해 생활하였고,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등으로 인해 교육·교화프로그램에 참석에서 우선되지 못하지만,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 생길시에는 민간교정기관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나, 군(軍)교정기관은 군 조직의 특성 상 그런 점까지는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필요시 민간교정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범죄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성욕 및 이욕 등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범죄 성향이 있는 것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모두가 초범이고 20대인 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보복성으로 범행을 하였다가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총기난사로 변모한 점, 모두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점, 범행도구가 모두 총인 점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하기 보다 보복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재고,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 가능성 확대, 군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 개선을 제안하였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의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사형선고 시 ‘군(軍)사형확정자 개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사고 원인을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 가혹행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형을 내리고 있다.⁴¹⁾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와 범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 목적과 잔혹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 가운데 충을 응시만 해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하는 우리의 본능적 의식 속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다.

20대의 나이에 국토방위를 위해 군입대한 자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었으나, ‘페스카마호’ 사건의 전씨가 특별감형을 받은 것과 같이 ‘군(軍)사형확정자에게도 한번쯤은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라는 논제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태경 등 8명, (2019),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pp.351-35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상균, (2008), ‘범죄심리학’, pp.448-453. 청목출판사.
 김성곤, (2021), 『군교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교정연구 제31권 제2호, pp.87-110, 한국교정학회.
 김영옥, (2002),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 제2집, pp.247-279,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용준, (2010), ‘교정학개론’, pp.372, 백산출판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2007), ‘국제피구금지처우준칙’, pp.109, 국가인권위원회
 박형민/김대근, (2019),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총서19-BB-02, pp.1-5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덕인, (2011),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23권 제1호, pp.277-300,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수정, (2018), ‘최신 범죄심리학’, pp.61-71, 학지사,
 유병철, (2015), ‘사형수신드룸에 관한 질적 연구’, 형사정책 제27권 1호, pp.163-188, 한국형사정책학회.
 윤창식, (2010), ‘사형확정자 처우의 이해와 쟁점’, 교정담론 제4권 제1호, pp.1-29, 아시아교정포럼.
 박용철, (2010),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비교형사법연구, pp.333-35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홍영오/김빛나/손지선, (2019),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19-AA-03, 한국형사법무연구원.
 허주욱, (2005),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국민투표에 붙이자)’, pp.231-267, 강원법학 2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기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16. 3. 16.),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통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16. 3. 28.),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20. 10. 29.), ‘군사형확정자 이송 검토 결과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1. 4. 14.), 균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8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1. 4. 14.),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8
 법제사법위원회, (‘21. 6.), ‘균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KBS, ‘세 모녀 살해’, <http://news.kbs.co.kr/> (검색 : ‘22. 3. 10.)
 SBS, ‘역대 사형 사면자 44명’, <https://news.sbs.co.kr> (검색 : ‘21. 8. 19.)
 YTN, ‘페스카마호 사건’, <https://www.yna.co.kr> (검색 : ‘22. 3. 10.)
 네이버, ‘수술대에 오른 군사법체계’, <http://www.hankyung.com> (검색 : ‘21. 8. 19.)
 구글, ‘우리나라 사형수’, <https://www.google.com> (검색 : ‘21. 7. 2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육군22사단 임병장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방송 피디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도관



이동원

SBS 교양국 PD,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절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군사시설 보안관련 위반, 그리고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등. 이걸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전과 많은 어느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다. 바로 나의 죄명들이다. 지난 7년간 나는 수많은 사건의 '피의자'로 살아왔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이 사실부터 안다면, 나를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크게 오해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인성이 아닌 직업 때문이다. 내가 SBS 교양국 PD이자,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자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 그 프로그램을 연출했다고 하면, 간혹 나를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나는 SBS라는 기업의 일개 사원일 뿐이다. 단지 조직의 인사명령에 따라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부서'로 발령받았던 것이다. 월급쟁이 입장이니, 당연히 발령 받은 부서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나의 업무때문에 장장 7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에 서 소환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나를 '피의자'로 만든 사람들의 면면도 참 다양했다.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내가 만든 방송이 나간 직후, 준강간을 저지른 죄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수십곳을 운영하다,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다. 물론 그 체포의 순간도 우리 카메라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나를 고소한 사람중에는 웹상의 여러 유명 순위나 차트를 조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 취재를 통한 확보된 증거로 기소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권력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 죄로 실형을 받고 해임된 공무원 역시 나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 외에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나를 만난 여러 수용자들이 나를 고소했고, 덕분에 나는 30대의 대부분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괴롭고 고달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냥 힘들진 않았다. 아니, 나는 꽤 살만했다. 내가 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내 노력을 인정해준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그알PD’로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받을 일이 많다. 특히 고소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모순된 일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다. 아니, 월급받으려고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다니. 게다가 ‘피의자’인데도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니, 솔직히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딱 2년 전, 비슷하게 고소를 많이 당하는 직업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직업은 바로 교정공무원이다. 그들은 ‘그알PD’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 그래서 처음엔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심지어 고소를 하는 주체가 수용자라는 점도 비슷하니 말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칭찬은 커녕 그 어떤 격려도 받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나의 직업은 세상 정의롭고 사명감 넘치는 사람처럼 과도하게 포장되기도 한다. 반면, 교도관의 이미지는 너무 좋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 속 교도관들은 몰래 수용자에게 담배를 팔며, 온갖 비리에 눈 감는 존재다. 심지어 교도소장실은 모든 로비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범죄 현장으로 표현될 정도다. 그걸 보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정공무원을 ‘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니 간혹 현장에선 수용자들조차, 교도관은 못할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거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직업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순사’라 불리던 형사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속 형사들 역시 비리 그 자체였다. 불법 업소에서 뒷돈을 받고, 친한 사람의 범죄마저 덮어주는 존재였다. 흥행했던 영화 <투깝스>만 떠올려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 물으면, ‘과학수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프로파일러’는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하는 인기있는 전문직종이 되었다. 그리고 <용감한 형사>라는 흥행 프로그램에서는, 전국의 일선 형사들이 매주 한 명씩 자신의 사건을 들고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형사가 존중받는 직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군인들은 이미 수년 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군부대 내부의 모습을 낱알이 공개했다. 연예인들의 리얼한 체험을 바탕으로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특수부대원이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전직 특수부대원들은 현재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다른 제복공무원인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다. 소방관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해도 근무처우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다. 시민들이 연민을 갖고 바라봐야 할 직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소방관 역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다. 그들 역시 10년 전 방송된 <심장이 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방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적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지, 매주 1시간씩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매년 6월 6일, 현충원에 모이는 제복공무원 중 여전히 대중의 관심 밖에 있는 직업은 교정공무원이 유일하다. 교도소 근무의 보안규정상, 대중 노출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인 역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경찰이나 소방관도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응하며 지켜야 할 비밀이 매우 많은 직업이다. 물론 작년에 방송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그리고 청주여자교도소의 내부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했던 나는, 교정본부에서 제작에 크게 협조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웠다. 나보다 수백 배는 훌륭한 교도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알려지지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이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가슴 아팠다. 조금 다른 이유로,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유명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다. 그 분과 종종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얘길 하곤 한다.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교도관밖에 없다고 말이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가해자는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런 가해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20년 남짓. 그 시간동안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교도관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먼훗날 피해자를 구해줄 사람이 교도관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교도관들이 더욱 떳떳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교도관이 드라마 속 ‘간수’가 아닌, 수용자와 상담하고 교화시키는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교도관들이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범죄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도관일 테니까 말이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특수성과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례 동향 연구



김자영
서울지방법원 보안과 교감

목차

- I. 과밀수용 국가배상의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II. 대구지방법원 2024나30359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 III. 부산지방법원 2024나47838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 IV. 과밀수용 국가배상 대응을 위한 시사점
- V. 맺음말

I. 과밀수용 국가배상의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



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

코로나 19 방역 기간의 경우에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사정을 인정하여 과밀수용 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들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징벌처분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대구지방법원 2024나30359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 징벌처분 기간의 특수성 고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징벌처분 기간의 과밀수용의 경우에 피고의 과밀수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하였고, 이러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대체로 징벌처분 기간은 1인실에 독거가 이루어지므로 과밀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징벌거실에 2명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의 필요성, 징벌처분의 특수성과 징벌 기간 수용 생활의 특수한 사정을 항변하여 과밀수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하였고, 이러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2. 코로나-19 기간의 특수성 고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방역기간의 특수성이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의 과밀수용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가사 원고가 징벌기간 외의 기간에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수용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단순히 수용면적만으로 산출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참조), 원고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기간 중 2020년부터 2023년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교정시설 입장에서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국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교정 시설 신축, 전국 교정시설간의 수용율을 조절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과밀 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위법한 과밀수용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III. 부산지방법원 2024나47838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위 사건에서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기간과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경우 과밀수용 배상 판결의 단서인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1행~제6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1 수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인 2㎡ 미만인 거실에 통한 203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기간 외에는 원고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2019. 4. 30. 이전에도 과밀수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교도소는 2019. 6. 17.부터 2019. 11. 22.까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한 수용자들의 안전 및 전염병 예방 등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7개의 수용동 94개 거실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동안 해당 수용동 인원이 다른 수용동으로 부산 이동됨에 따라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 ② 2020. 1. 27.부터 2023. 5. 31.까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기간¹⁾이었는데,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정부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 1. 20. 이후인 2020. 1. 27.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였고, 그 후 여러 방역 방침을 실시하였으며, 2023. 6. 1.에서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거실환경 개선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불가피하게 과밀수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동안 과밀수용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9. 4. 30.(1일), 2019. 11. 23.~24.(2일), 2019. 12. 30.부터(9일), 2020. 1. 22.(1일), 합계 13일 동안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수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과밀수용기간(13일), 피고가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신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1~14면 "별지1 수용내역표"를 당시 판결의 "별지1 수용내역표"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47838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고

IV. 과밀수용 국가배상 대응을 위한 시사점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원에서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으로 코로나-19 방역 기간, 징벌처분 기간,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실시 기간이 인정되었음을 살펴보

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과밀수용 배상과 관련된 주장들의 이유 없음을 설득하고,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 기간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징벌처분 기간 등의 과밀수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향후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조자연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교위

목차

- I. 들어가며
- II. 벨기에 교정행정 개요
- III.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개요
- IV. 시사점 및 후기

I. 들어가며

유럽연합(EU)의 교정 시스템은 회원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전반적으로 인권 보호와 재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벨기에는 유럽 내에서도 선진적인 교정 정책을 시행하며, 수형자의 재활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6박 8일간 벨기에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벨기에 법무부(FPS Justice) 산하의 자율서비스 단체인 Cellmade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벨기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및 Cellmade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형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벨기에 교정 시스템이 우리 교도작업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한다.

II. 벨기에 교정행정 개요

1. 벨기에 교정기관

벨기에 교정 기관 총국(DGEPI, Directoraat-generaal Penitentiaire Inrichtingen)은 벨기에의 교정 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교도소의 운영, 교정 정책 수립 및 시행, 수용자의 관리 및 처우 개선, 인프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 교정 기관 총국(DGEPI)은 혁신적인 교정 정책을 추구하며, 수형자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고, 직원들의 역할과 전체 조직의 윤리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교정본부와 유사하게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방 법무부(FPS Justice) 산하에 있으며, 37개의 교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무

- 법에 따라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개별화된 형벌과 자유 박탈 조치를 보장하여 사회로의 최저 복귀를 목표로 함

비전

- 혁신적인 교정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함
- 구금 모델은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며, 수형자와 직원의 권리와 의무 및 모든 직원의 청렴성을 주요 지침으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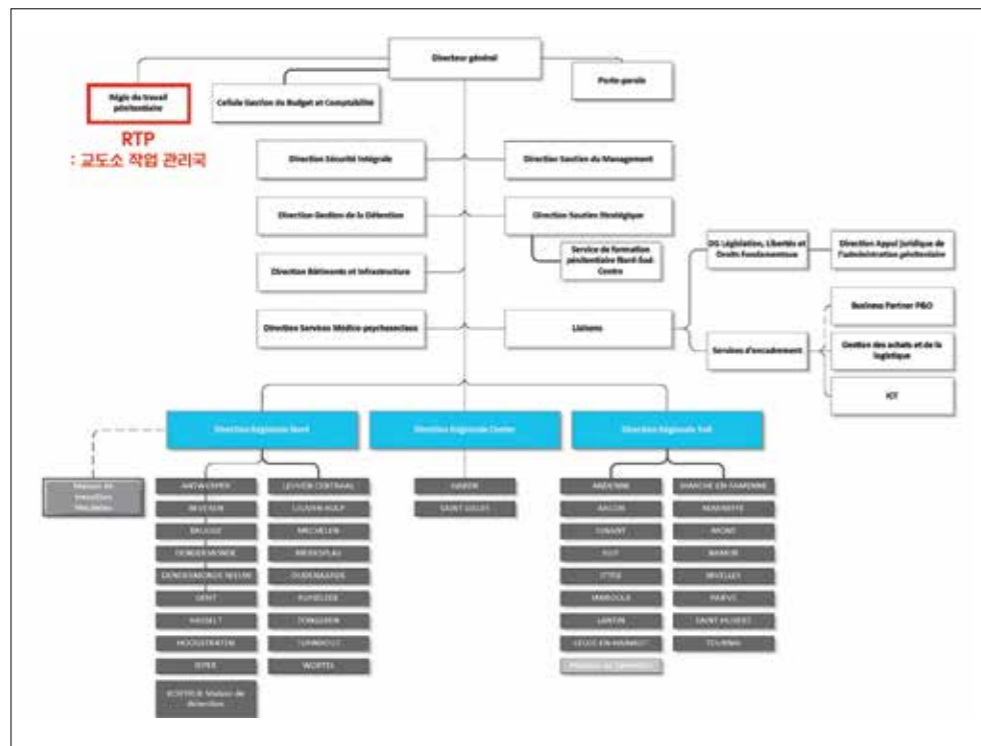


- ▶ 벨기에 연방 법무부(FPS Justice)의 공식 로고 사용
- ▶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
- ▶ 저울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징
- ▶ 법과 정의, 그리고 국민 보호에 대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음

[벨기에 교정 심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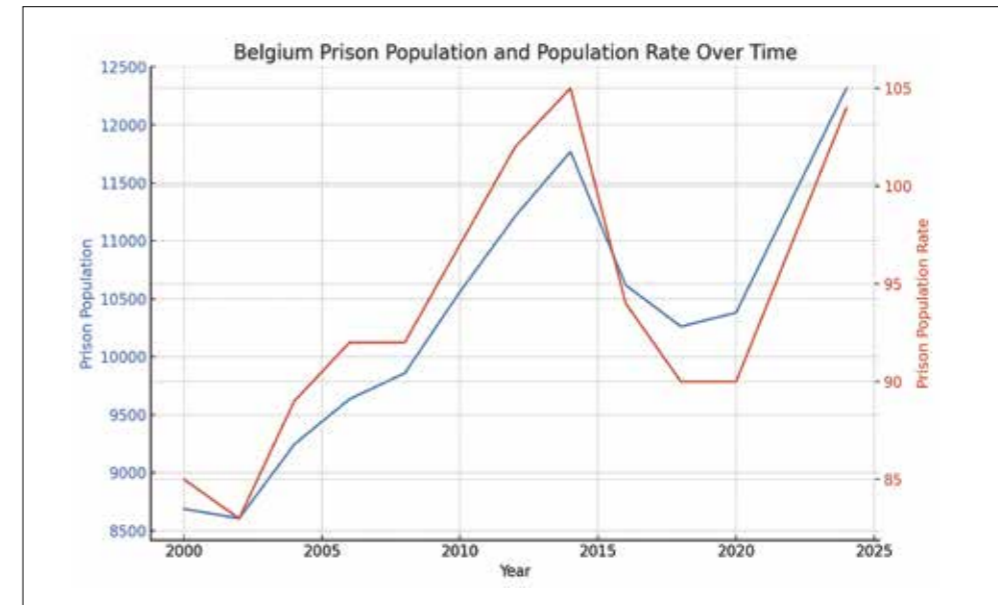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교정 기관 총국(DGEPI)의 하위 기관으로, 수용자들에게 작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도소 내 다양한 작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교정 기관 총국(DGEPI) 조직도〉



벨기에의 교정시설 수용자 수는 24년 3월 기준 12,316명으로 공식 수용능력인 10,743명을 크게 초과하여 약 114.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교정시설 수용자 수〉



이러한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기에 교정기관은 법무부와 건물 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년간의 계획을 통해 교도소 및 정신병원 센터의 개조, 확장, 신축을 포함한 '인도적인 환경에서의 구금 및 수감'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정 시설 및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된다.

2. 벨기에 셀메이드(Cellmade)

(1) 셀메이드(Cellmade)란?


FPS 법무부 산하 교정 기관 총국(DGEPI)에 속하며, 교도소의 작업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진 국가 서비스이다.

Cellmade는 1931년부터 벨기에 교도소 수용자의 고용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벨기에 전역에 60개 이상의 교도소 작업장이 있고,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생산을 Cellmade에 의뢰할 수 있다.

셀메이드(Cellmade) 목표와 사명

- ▶ (직업통합) 수용자에게 학습 및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
- ▶ (재범률 감소)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여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재범의 위험을 줄임
- ▶ (사회적 책임) 수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장려
- ▶ (비즈니스 지원)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수용자들의 품질이 보장되는 노동력을 제공

(2) Cellmade, 교도소 작업의 강력한 브랜드

	<p>Cellmade 로고</p> <p>“교도소는 좋은 일을 합니다.” “교도소는 제 역할을 잘합니다.”</p>
---	--

최근 몇 년간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며 상업적인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용자에게 교도소 내 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특히, 교도소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경영자들이 수용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도록 설득하기 위해 ‘Cellmade’라는 라벨을 출시하여 상업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Cellmade를 통해 수용자 작업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내 교도소 작업장과의 연결, 박람회 참가 등 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교도소 작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ellmade는 문자 그대로 ‘교도소에서 수행된 작업’을 의미하지만, ‘동료 수용자’와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교도소’라는 의미를 내포한 브랜딩을 통해 수용자 작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캠페인 ‘교도소는 잘 하고 있다’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그들의 임무와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슬로건과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2014년 11월 19일 전국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슬로건인 ‘교도소는 잘 하고 있다’는 기업과 수용자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Cellmade의 참여 기업 모집 홍보>



이 캠페인은 교도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교도소 임무가 적힌 작은 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진행되었다. 이 사진 캠페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거의 모든 신문과 시사 잡지에 실렸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전적 요청이 쇄도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4) 셀메이드(Cellmade) 현황

1개의 본부와 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플랑드르(Flanders)와 왈로니아(Walonia)에 각각 3개의 지부에서 작업의 생산과 고객을 관리한다. 벨기에 전체 수용자의 40%가 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20%는 Cellmade의 계약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교도소작업을 통해 얻은 총 수입은 2023년 기준 23,373,261.20유로(약 327억 원)에 달하며, 기업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입은 7,417,812.15 유로(약 104억 원)이다.

셀메이드(Cellmade) 주요 구조	
계약 사용 사기업 (Contract-use-private company)	자체 운영 작업장 (Own direction workshops/ateliers)
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작업을 수행	교도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이 작업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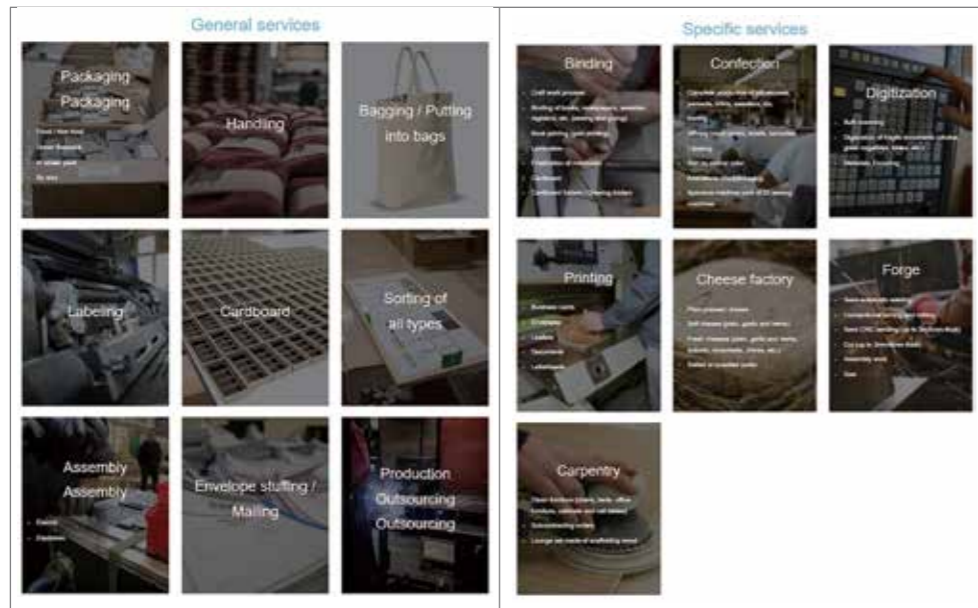
<Cellmade 조직 위치>



(5) 셀메이드(Cellmade) 주요 활동

벨기에 전역의 여러 교도소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유형은 목공, 금속 가공 및 조립, 제품 포장, 도서 제본, 자전거 유지 보수, 인쇄, 문서 디지털화, 치즈 제조, 커피 로스팅 등 매우 다양하다. 거의 1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노동청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Cellmade의 수익금은 수용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 습득, 정신 건강, 스포츠, 문화 활동 등에 사용된다.

<Cellmade의 주요 서비스>



주요 프로젝트 사례	
<p>루뱅 중앙 교도소 (Leuven Central Prison)</p> <p>(프로젝트) 텃밭 가꾸기, 요리 워크숍, 약물 재방 방지 프로그램 (성과) 폐쇄된 콘크리트 구역을 정원으로 변환하여 수용자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 (추가 계획) 양봉 및 꿀 생산 프로젝트</p>	<p>로이 제양 하이노 교도소 (Leuze-en-Hainaut Prison)</p> <p>(프로젝트) 스포츠 토너먼트, 정원 가꾸기, 탁구대 설치 (성과) 수용자들에게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활 환경 제공</p>

Cellmade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개요

1. 루뱅 중앙 교도소(Prison Leuven-Central)

- 위치 : Geldenaaksevest 64, 3000 Leuven
- 방문일자 : 2024. 6. 26. (수)

<Prison Leuven-Central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19세기 중반에 지어져 1860년 10월 1일에 개청한 이래로 장기 체류에 적합한 독점적 폐쇄 체제¹⁾를 갖춘 벨기에의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당시 교도소 시스템의 감찰관이었던 Edouard Ducpetiaux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단순한 교정 시설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건축물은 1996년 7월 9일에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고전적인 감옥으로 2개의 큰 날개와 4개의 작은 날개가 있는 별 모양으로 4명의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4인실 1개를 제외하고 모든 셀은 단일 셀(1인실)이며, 날개 사이에는 2개의 보행 코트와 대형 스포츠 코트가 있고 각 동마다 여러 개의 작업장, 극장실, 피트니스 및 유산소실, 다양한 강의실 그리고 여러 레크리에이션실이 갖춰져 있다. 현재 이 교도소에는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398명이 수용되어 있다.



전경 모습

<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찰 모습>



1) 독점적 폐쇄 체제란? 교도소 내의 특정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용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보안 등급이 요구되거나, 특별히 위험한 수용자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체제임

루뱅 중앙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목공소 등 다양한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본(Bookbinding) 작업장이 특화되어 있다.

제본 프로젝트는 수용자들에게 유의미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 Cellmade의 핵심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제본(Bookbinding) 작업장>



전문 직원들의 지도를 받아 수용자들이 완성한 제품은 교도소 내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수용자 복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나 피해자 보상에 사용된다. 이 활동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치료적 출구로도 작용하여 수용자들에게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본 프로젝트는 재활과 인도적 처우에 중점을 둔 벨기에 교도소 시스템의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진보적인 교도소 개혁의 모델로 자리 잡아 찬사를 받고 있다.

<목공, 세탁, 봉제 등의 작업장 참관 모습>



2018년 루벵 중앙 교도소에서 실시한 녹색화 프로젝트는 수용자들의 협의하에 비영리 단체 Terra Therapeutica와 PXL Hassel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학생들과 협력하여 교도소 내 정원을 조성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태 정원 부문에서 유럽 상을 수상하였다.

10명의 수용자들이 4개월 동안 정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나무, 꽃, 잔디밭, 산책로 등을 가꾸어 콘크리트 안뜰을 치유의 정원으로 조성하여 수용자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Leuven2030 기후 계획 일환으로 수용자의 복지와 환경적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여 다른 교도소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다.

<정원 및 텃밭 가꾸는 모습>



2. 덴더몬드 교도소(Dendermonde Prison)

- 위치 : Tanneweg 1, 9200 Dendermonde
- 방문일자 : 2024. 6. 27. (목)

<Dendermonde Prison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2023년 3월에 개칭한 신축 교도소로 444명의 남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금 및 처벌 기관이며, 벨기에 법무부는 덴더몬드 교도소를 통해 수용자들의 재통합 준비를 중심으로 보다 인도적이고 안전한 교정 시설을 목표로 한다.

교도소 과밀화를 방지하고 생활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인 “인도적 조건에서의 구금 및 수용”이라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Poort van Dendermonde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이 교도소가 건설되었으며, 향후 25년 동안 교도소 관리(폐기물 처리, 세탁소 운

영, 청소 등)를 담당하게 된다. 이 컨소시엄은 25년간 연방 정부에 건물을 제공하며, 정부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교도소는 연방 주 정부에 인계될 예정이다. 교도소의 구조는 네 개의 별도 건물 구역과 거실 날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감독 코어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Dendermonde Prison 전경 및 내부 중앙 감독 코어 모습>



교도소 내에 설치된 교도소 법정(Prison Court)은 판사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들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 밖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판사가 주 1회 교도소를 방문하여 법적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대우나 인권 침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이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제도는 추가 혐의, 가석방 심사, 재심 청구 등 수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도소 법정(Prison Court) 모습>



교도소 내 거실 창문에는 창살이 없지만, 건물에는 680개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카메라 감시 시스템은 교도관의 감시 업무를

보완하여 수용자와의 개인적 접촉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금 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예술 통합 계획의 일환으로 Royal Academy of Fine Arts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유명한 거리 예술가들이 교도소를 위한 조각품, 벽화 등 예술 작품을 제작하여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벽화 등 예술적 요소를 더한 교도소 내부 모습>



덴더몬드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 자체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 수용자들이 가구 제작, 자전거 수리 및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찰 모습>



<종교실>



<도서관>



<포스터 및 광고물 제작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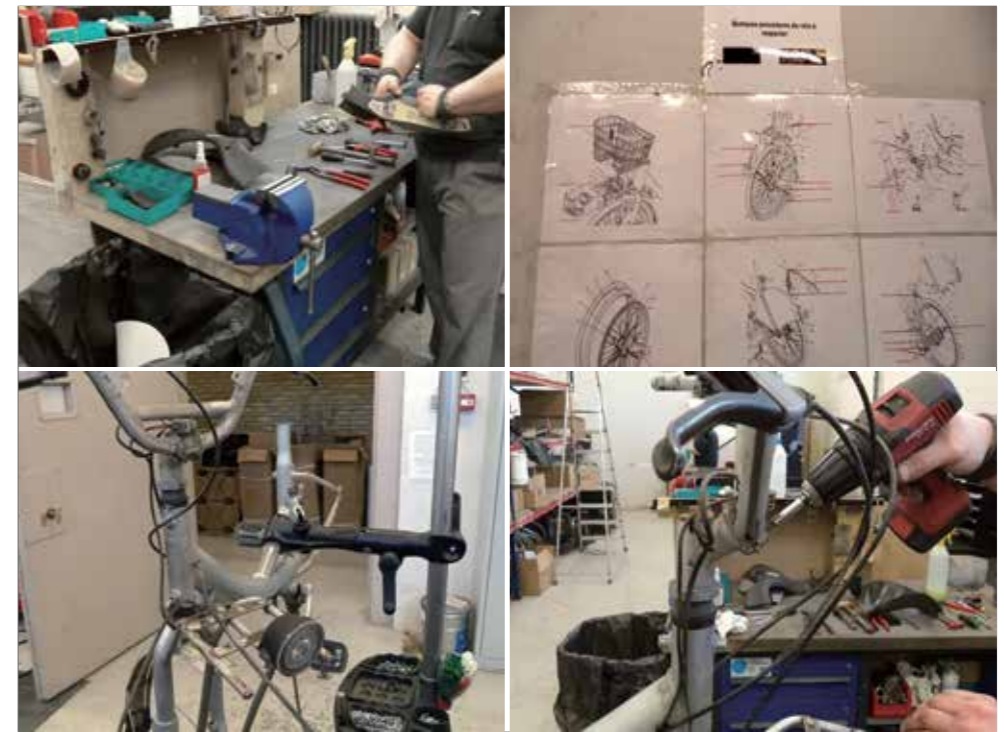
<의료과>



<요리 직업훈련실>



<자전거 수리 모습>



<수용자 구매품 창고>



<취사장>



<목공 작업장 모습>



작업장은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상하차를 통해 물품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외부에서 교도소로 들어오는 물품은 지정된 입고 구역으로 운반되며, 구역별로 작업을 분담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덴더몬드 교도소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도소 노동의 가능성과 Cellmade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자들과 협력하여, 수용자들의 사회 재통합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작업장 입·출고 물류 시스템>



<기업 모집 홍보 활동 모습>



3. 로이 제양 하이노 교도소(Leuze-en-Hainaut Prison)

- 위치 : Avenue de l'Europe 1A, 7900 Leuze-en-Hainaut
- 방문일자 : 2024. 6. 28. (금)

<Leuze-en-Hainaut Prison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2014년 5월에 공식적으로 개청된 이 교도소는 '인도적인 환경에서의 구금 및 수감'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설계된 현대적인 시설로, 354명의 남성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교도소는 인간적인 조건에서의 구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DBFM(Design, Build, Finance, Maintain)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및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벨기에 연방 정부와 민간 컨소시엄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민간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계획, 건설, 자금 조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연방 정부는 25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간 파트너는 건물 유지 보수, 폐기물 관리, 식당 운영, 세탁소 운영, 녹지 공간 유지 보수 및 청소 등을 책임진다.

DBFM이란?

- Design (설계) 민간 파트너가 교도소의 설계를 담당
- Build (건설) 교도소의 실제 건설 작업을 민간 파트너가 수행
- Finance (자금 조달) 민간 파트너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Maintain (유지보수) 교도소의 유지 보수 작업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파트너가 책임

이 교도소의 특징 중 하나는 'Prison Cloud' 시스템이 각 거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전화, TV 사용 및 매점 주문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는 하루 총 7.5시간 동안 안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주 5일, 하루 1시간 30분씩 피트니스, 커뮤니티 룸, 스포츠 홀을 이용할 수 있다.

Prison Cloud 시스템

Prison Cloud 시스템은 Leuze-en-Hainaut 교도소의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수용자들이 최신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계

○ 기능 및 서비스

- (통신 관리) 수용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화 시간을 예약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며 통화 요금을 지불함
- (텔레비전) 수용자들은 각자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용자들이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음
- (매점 주문) 수용자들은 매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내역을 관리하고 결제를 처리하며, 수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킴
- (내부 서비스 연락) 수용자들이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과의 연락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복지와 재사회화 과정을 지원함
- (교육 및 재사회화 지원)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들이 재사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온라인 강의, 자격증 과정, 직업 훈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음

○ 장점

- (디지털 격차 해소) 수용자들이 최신 기술을 접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운영 효율성 증대) 매점 주문, 전화 관리, 텔레비전 시청 등의 기능을 자동화하여 교도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용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투명성 및 관리 강화) 수용자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재사회화 지원) 수용자들이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거실 내 Prison cloud 설치 모습>



<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모습>



<교도소 내 시찰 모습>



<작업장 참관 모습>



<Cellmade 프리젠테이션 및 기념선물 증정식>



로이 제양 하이노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활동, 교육 및 개인 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수용자들이 기본 생활 외에도 요리, 원예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 기본 교육, 언어 수업, 운전면허(이론) 등의 교육과 신체 활동 기회도 제공된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동차 매트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Cellmade는 기업 발굴과 외부 고객과의 접촉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약 80명의 수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 기회를 얻으며, 주방, 세탁소,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내부 작업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수용자들이 구금 기간 동안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복귀 후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독서 모임, 명상 등 다양한 여가 활동과 함께 수용자들이 스포츠 코치로 훈련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스포츠 토너먼트를 조직하여 수용자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팀워크와 경쟁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탁실, 자동차 매트 및 식품 포장, 봉제 등 다양한 작업장 모습>



4. 암스테르담 징치장(Amsterdam Zuchthaus)

- 위치 : Kalverstraat 92
- 방문일자 : 2024. 6. 30. (일)

<Het Spinhuis 방문 모습>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을 마친 후,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의 시초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Amsterdam Zuchthaus)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암스테르담 징치장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네덜란드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처음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개념이 현대와 많이 달랐으며, 범죄자들을 단순히 격리시키는 것보다 교화와 노동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주로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용했으며, 수용자들은 독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주로 섬유산업 관련 작업이나 농업 노동을 통해 재활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들이 글을 배우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스테르담 징치장은 네덜란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 수용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화와 재사회화를 시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였고, 출소 후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와 운영 방식은 다른 나라의 교정 시스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Het Spinhuis는 1597년에 설립된 여성 교도소로 여성 수용자들에게 방직과 같은 노동을 통해 교화를 시도한 곳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교정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IV. 시사점 및 후기

벨기에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 교도소 내 작업 및 훈련의 동향과 제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교도작업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벨기에 교도소는 작업과 운영을 담당하는 Cellmade라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두어 보다 폭넓게 운영되고 있었다.

Cellmade는 기업체 모집부터 선정, 계약 및 관리까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고객 지향적인 상업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용자에게 교도소 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체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작업장에 상주하며 작업 지도와 품질 검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교도작업 제품을 개별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대신 교도작업 자체를 브랜드(Cell made)로 만들어 홍보한 점은 매우 인상 깊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직영작업과 위탁작업을 통합적으로 브랜딩하여 상업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우리 교도작업 제품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는 반면, Cellmade는 정부 및 외부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차이가 있으며, 개인에게는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방식이 차별화 되어 있었다.

벨기에의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은 Cellmade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민간 단체와의 상호 협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Cellmade는 교도작업과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프로그램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비영리 단체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도소 녹색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벨기에 교도작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청원작업 형태로 운영되며, 수용자의 특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도작업은 징역형 집행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정행정도 벨기에의 Cellmade, 교도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UNICOR),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 재단법인 교정협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의 원자재 조달과 생산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와 같이 교도작업의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캄보디아 교정국장, 교정본부 방문



일시·장소 10. 16.(수) 16:30,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자 - (교정본부) 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등 7명
 - (캄보디아) 교정국장 등 8명
주요 내용 본부장 접견, 홍보영상 시청, 기념품 전달 등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일시·장소 10. 28.(월) 14:0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참석자 장관, 본부장, 대변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수상자 등 600여 명
주요 내용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장관 기념사, 정부포상 수여, 교정홍보영상 상영, 특별공연, 부대행사 등

'24년 8-9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개최



일시·장소 10. 21.(월) 11:20, 본부장실
대상자 - 우수 수사관 : 안양(교) 교사 박건규, 서울남부(구) 교위 박근형
 - 우수 정보관 : 서울(구) 교위 김현성, 부산(교) 교위 김준수
 ※ 격려금 및 증서 수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41주년 기념 <교정동우회 전국 지회장 간담회>



일시·장소 11. 4.(월) 12:00,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참석자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및 지회장, 회원
 - 교정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본부 과장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서울지방교정청은 10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여 6팀 17명에게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상장을 수여하였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앞으로 건축가로서 성장하여 꿈을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안섭

SBS PD·방송작가 서울구치소 참관

서울구치소는 SBS 소속 PD·방송작가 7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하였다. 본 행사는 교정공무원 이미지 제고 및 교정행정 홍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관소개, 수용거실 및 의료과 등 주요시설을 참관했으며, 수용거실 내 수용자 식단과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동안양세무서 대상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0월 11일 동안양세무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에서는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호장비 체험을 하는 등 색다른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소망갤러리 전시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10월 14일부터 약 6개월간 구치소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문화공간인 소망갤러리에서 「의당 김원태 작가」의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현우 소장은 “구치소가 단절된 장소가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가능성의 공간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보라미봉사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21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형자 봉사단을 구성,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박경선 소장은 “수용자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 참관

인천구치소는 10월 18일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 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을 돌아보았으며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조영진

김도형 교감, 구로구민상 생활체육부문 수상

서울남부구치소 사회복귀과 김도형 교감은 9월 27일 제34회 구로구민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구로 G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도형 교감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홍민우

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 임용 직원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 임용 직원 및 관계자 34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과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의정부교도소는 10월 14일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수식에는 여러 현직 교정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규 위촉을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위촉장 전수식 후에는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참관과 교정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여주교도소는 10월 25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직원 가족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40여 명의 가족들은 수용동과 작업장 등을 참관하고 교정장비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법무부 국민기자단 및 CJ오픈 작가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부 국민기자단과 오픈 작가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직업훈련 과정과 수용동 등 시설을 둘러본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정행정과 시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와 업무협약 체결

춘천교도소는 10월 22일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공연 등의 교화 활동을 제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시찰

원주교도소는 10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등 17명의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주교도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수용시설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충주구치소 교정 위원 참관 행사 개최

강릉교도소는 10월 22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충주구치소 교정 위원을 초청하여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이종갑 회장은 강릉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충주 사과 16 Box(576개)를 기증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영월 진로박람회(영월드 X 잡월드) 참여

영월교도소는 10월 21일 영월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영월 진로박람회(영월드 X 잡월드)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영월교도소는 진로상담, 교정장비 체험, 제복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학생 대상 교정시설 참관 행사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10월 16일 속초시 설운중학교 학생들의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직무설명을 듣고, 교정장비 체험 행사를 마친 뒤 보안 청사로 이동하여 엄정한 수용질서 아래 운영되는 교정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평택지소는 10월 4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평택지소 신규교정위원 대상자는 2명이며 위촉장 전달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였다. 김성열 소장은 이들에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美 에미상 수상작 ‘프리 철수 리’ 상영회

소망교도소는 10월 22일 美 에미상을 수상한 다큐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회를 열었다. 미국 내 소수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한 국계 이민자 이철수 씨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에미상 이후 첫 상영회를 열어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총 143점이 출품되었으며,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60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지역주민 초청 참관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10월 23일 자매결연 마을인 감문2리 지역주민 21명을 초청하여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 구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도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상호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제2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대회 개최

부산구치소는 10월 5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제2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산구치소팀이 우승, 센텀조은검도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불교 집회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16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교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헌담 스님은 “수용자들이 종교 집회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수용생활을 아무 탈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경남대 간호학과 학생 참관 실시

창원교도소는 10월 22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주 교수 및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및 질의응답, 수용동 등 참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의료과 간호직 공무원의 수용자 진료업무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직원 건강검진 실시

부산교도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까지 한 번에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음주운전 제로화 결의대회 실시

포항교도소는 10월 7일 전 직원 「음주운전 제로화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직원 대표가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직원 사격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10월 23일 사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직원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직원 사격훈련은 사격술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교정시설 방호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대구구치소는 10월 17일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사격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17일 경북북부교정시설 사격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직원의 총기조작 및 실제 사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교정시설 경계 및 통합방호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교정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및 참관

안동교도소는 10월 10일 거창구치소와 안동교 교정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상호간의 편의 제공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참관으로 각 기관의 현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가족 참관의 날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24일 가족 참관의 날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가족들은 수용동 등 참관을 통해 수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짜장면 DAY 따뜻한 희망의 한 그릇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15일 교정협의회와 구미 상모교회의 후원으로 「희망의 한그릇, 짜장면 DAY」 행사를 열어 수용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행복과 희망을 전했다. 이일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오인 석방 방지 자체 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인 석방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석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석방 시 미납 벌금(노역) 유무 확인 및 추가사건 확인 방법을 교육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교정의 날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받아

울산구치소는 10월 22일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의미를 담은 특식(생닭 700인분)을 취화신건설로부터 기증받았다. 김حم대 소장은 “취화신건설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수용자 짜장면 제공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0월 21일 대구시 달구벌 중식 봉사단(지부장 최재돈)의 지원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담은 맛있는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공연 관람

통영구치소는 10월 11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개최하는 '윤홍천의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 I, II, III'의 기획공연에 초대받아 통영구치소 직원 및 대체복무요원들과 함께 공연관람을 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교정협의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밀양구치소는 10월 17일 신규 교정위원 4명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운 교정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밀양구치소 수용자의 교육, 교화, 종교 분야에서 교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10월 21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인 희망재활원을 찾아가 수행자 5명과 함께하는 보라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소 및 주변 정리 등과 같은 작은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직원 건강검진 실시

거창구치소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교정 홍보 행사 진행

대전지방교정청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제복근무자 Thank You페스타』에 참여해 교정에 대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교도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참관 행사

대전교도소는 10월 16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등 34명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교정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한국공예관에서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청주교도소가 주관한 제53회 교정작품 전시회가 10월 25일 한국공예관 3층 2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 문예 작품 입상작 143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들의 가능성과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신규 위촉 교정위원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10월 21일 신규 위촉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천안교도소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 생활과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교정위원 교육 및 교화 활동에 바탕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한마음 문화공연 &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18일 한마음 문화공연과 더불어 수용자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했다. 유진박의 공연 재능기부를 시작으로 수행자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중지되었던 문화공연을 재개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공주교도소는 10월 15일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공주지청 김민구 지청장을 시작으로 공주공산성로터리클럽회장, 공주소방서장, 제3585부대 3대대장 등이 릴레이를 이어갔다. 공주교도소는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참여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충주구치소는 10월 8일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수용동 등 시설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구내 참관 실시

홍성교도소는 10월 7일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식과 구내 참관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촉장 전수식을 마치고 소내 시설을 참관하여 신규 교정위원들의 교정행정의 이해를 도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 24일 천안서북소방서와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서산지소는 10월 11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손안수 위원과 이지현 위원의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송재열 소장은 "교정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외부강사 초빙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논산지소는 10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으로 논산지소 직원들은 평소 소홀히 할 수도 있었던 반부패 관련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학습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정부광주청사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17일 정부광주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건국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가상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진압 및 대피, 부상자 후송 등 임무를 수행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행사 진행

광주교도소는 10월 15일 광상민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교정위원에 대해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수용동 등 시설 참관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10월 18일 전주 신성양로원을 방문하여 전직작업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용자와 직원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지역학생 교정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0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인근 순천 동산초등학교와 새빛중학교 학생 6명에게 각 30만 원씩 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매년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목포교도소는 10월 16일 교화분과 신규 교정위원 5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수용동·직업훈련장 등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통지구위원, 군산교도소 참관

군산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통지구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서 영통지구위원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범죄예방과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제주교도소는 10월 16일 유관기관 합동 훈련으로 드론대응 및 화재진압, 대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불법드론의 침투로 인한 화재발생 대응과 조종자 수색 및 검거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교정 시설 참관 실시

장흥교도소는 10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교정현장 체험을 통해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해남교도소는 10월 15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참관행사에서 신규 교정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교정위원 참관 행사 진행

정읍교도소는 10월 15일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및 위촉식을 가졌다. 참관에 참여한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도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모범 공무원



춘천교도소 운전주사보 이상규

이상규 운전주사보는 2009년 춘천교도소에 임용되어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무차량을 무사고 운행하였으며 사전 차량 점검 등 관리를 성실하게 해오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훈련 및 소방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용자 호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경주교도소 교위 채기현

채기현 교위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의식을 잃은 수용자를 발견하여 즉시 TRS로 보안본부로 상황을 전파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출동한 지원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했다. 주간 근무 시간에 수용자의 동정을 세밀히 관찰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한 생명을 살려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천안교도소 교위 고일성

고일성 교위는 제10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 주관기관인 천안교도소 야구동호회 회장으로써 야구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천안야구장과 심판을 섭외하고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기장 사전 점검을 착실히 하여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다.

군산교도소 교사 이영주

이영주 교사는 보안행정 물품 담당자로서 관계 규정에 따라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명량한 성품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동 근무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먼저 나서는 모범적인 모습이 인정되었다.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 도자기
- 전구
- 죽자
- 실험관
- 깃털
- 부채
- 하프
- 팔레트
- 집
- 연필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천 원권 발송

내일의 변화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찾아갑니다. 다음의 100년,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8일~11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 5~30년된 아파트는 제외
- 조사항목**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14개 항목)
- 조사방법** 거처와 가구 현장확인, 일부 가구 면접조사
- 콜 센터** 080-2024-2024(무료)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 포함)